

여서시시대

양희은·김일종입니다

11월
2025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성서공단지점 거래고객
영일엔지니어링(주) 이창은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서대전지점 거래고객
(주)어라운드울 정유리 대표



낯선 누군가의 연락 두렵다면 112 일제정제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감정적 테러 보이스피싱

연락을 멈추고
주변에 상의할 때
비로소 벗어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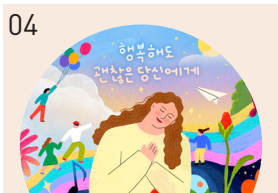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IBK기업은행이 함께 합니다**



i-ONE 가드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전에 예방하세요!



연령별 주요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및 예방법을 확인해보세요!



- 04 여성시대 특집**
여성시대 50주년 기념 음원
- 10 이달의 편지**
‘집 장만하기’ 외
-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영일엔지니어링(주) 이창은 대표
-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주)어라운드울 정유리 대표
- 80 코너 속 편지**
‘환장의 캠핑’ 외
- 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허공 속의 흐름
- 113 김일중의 스튜디오에서**
알레르기 비염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5년 11월 10일 **발행인** ㈜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중 **프로듀서** 안동진, 김예은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에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콩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건설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행복해도 팬창은 당신에게

여성시대 50주년 기념



2025년 올해는 여성시대가 방송 50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여성시대 가족들의 사연 속에는 시대별 정치, 경제, 문화가 가득 담겨있습니다. 여성시대는 그렇게 현실의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여성시대는 방송 50년을 기념하기 위해 음원을 제작했습니다. 음원은 여성시대 주인공이신 당당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 주셨습니다. 가사는 당당이님들이 주셨던 사연 ‘나에게 쓰는 편지’에서 뽑았고, 하림 님이 곡을 붙여주셨습니다.

50주년 기념곡인 만큼 합창단원도 50명으로 맞췄습니다. 진행자 두 분과 만남중창단 네 분, 그리고 음악감독을 맡아주신 하림 님과 마흔세 분의 여성시대 당당이 분들을 가든스튜디오에 모셔서 함께 노래했습니다.

노래는 우리들의 마음이며 희망이며 기도입니다. 이 노래가 멀리멀리 퍼져 모두의 마음에 행복과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행복해도 괜찮은 당신에게

돌아보면 이 자리에서
버틴 건 오로지 나였다
삶은 그저 잿빛처럼 보였었지만
그 안에 뜨거움이 있었네

언제쯤이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운은 늘 비껴가지 않았던가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를 실은 차들이 도로 위를 오가네

나는 늘 제자리걸음이고
지치는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 세상 모두는 출발선은 다르지만

행복은 다르지 않아
용기는 내 안에 있어
그래서 인생은 아름답고
살아 볼만 해요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이 되면
당당해질 거야 더 나아질 거야
나에게 사랑한다고
꼭 말할 거야

이 말이 그리 어려웠던가
이 말이 난 참 그리웠구나
나에게 조금은 쉬어 가라고
따뜻하게 말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 홀로 외롭고 지칠 때도
돌아보면 내 곁에는 언제나
우리가 있잖아
모두 함께 가는 거야

행복은 다르지 않아
용기는 내 안에 있어
그래서 인생은 아름답고
살아 볼만 해요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이 되면
당당해질 거야 더 나아질 거야
나에게 사랑한다고
꼭 말할 거야



가을이 좋아!



[4969] 가을 하면 가을 운동회죠. 어릴 땐 마냥 좋았는데 유치원생 아들이랑 같이 출전하는 달리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살이 너무 찌버려서 꼴찌 하는 저의 모습에 실망할까 봐 이번 주부터 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가을 운동회와 아빠가 된 이후의 가을 운동회가 이렇게 다르네요.

[1971] 여기는 행사용 신발 업체입니다. 저희는 평상시에도 바쁘는데 가을이면 더 바쁩니다. 휴일도 없이 신발 만들어 납품해야 합니다.

[4252] 문해 지도사라는 자격증을 따고 어르신들 한글 교실을 맡게 되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지만 이번 가을 어르신들과 함께할 생각에 설레기도 합니다. 잊지 못할 가을이 될 것 같네요.

[1453] 공무원직 청사 미화원입니다. 가을은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 팀원들과 낙엽 치우느라 고생이 많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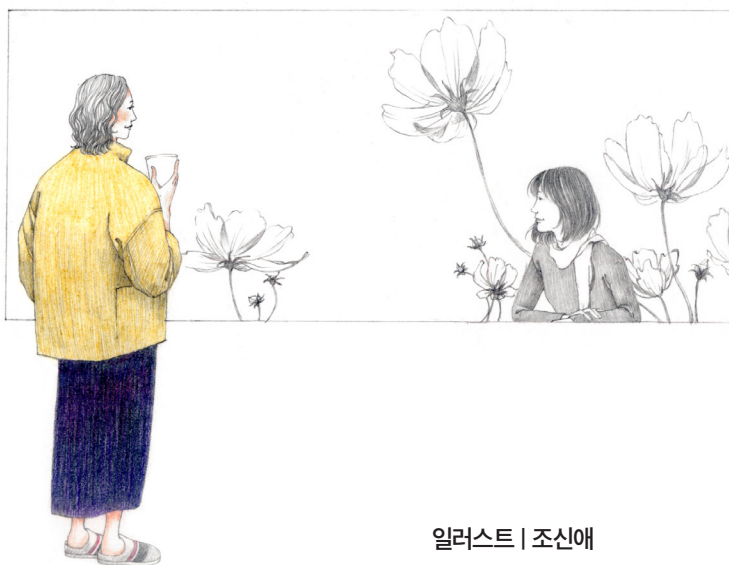
[양혜영] 저는 가을이면 홈베이킹을 해서 친구들에게 선물해요. 마들렌, 휘낭시에 등등 가을엔 선선하니 집에서 오븐도 뽐뽐 돌리기 좋아요! 여름에 못했던 홈베이킹 원 없이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에요.

[정소정] 저는 열공해서 한국사 심화 시험 도전합니다. 작년에 공인중개사 합격하고, 나이 오십에도 목이랑 어깨 아프지만 항상 응원해 주는 가족이 있어서 계속 용기 내어 봅니다.





- | | |
|------------------|---------------------|
| 12 집 장만하기 | 40 위층에서 온 손편지 |
| 15 어느 노부와 딸 | 43 장인어른과 함께한 일주일 |
| 18 지리산의 중심 세석대피소 | 47 내 인생의 마지막 궤도 |
| 20 그놈의 자전거 | 50 저는 억울합니다 |
| 24 포카를 아시나요? | 53 시골 마을 이야기 |
| 29 길에서 만난 치매 할머니 | 57 소주 한 병으로 10년이 행복 |
| 33 이만하면 참 잘살았네요 | 60 나는 가져가게 생겼나 보다 |
| 36 혼자만의 힐링 여행 | |



Letter 01

집 장만하기

김태욱 | 경기도 오산시 금암로

나는 작은 집에서 자랐다. 다섯 식구가 방 세 칸을 나누어 쓰던 그 집은 언제나 좁고 어수선했지만 따뜻함과 사랑이 넘쳤다. 그러나 그 좁은 공간에서 나는 단 한 번도 나만의 방을 갖지 못했다. 큰누나와 작은누나는 각각 방을 하나씩 차지한 반면 나는 언제나 거실 한쪽에서 웅크려 자고 공부했다. 그나마 식탁 밑이 나의 유일한 아지트였는데 그곳에서 머리를 숙여 책을 펼칠 때마다 온전한 ‘내 방’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커다란 꿈이 자리 잡은 것이다. 언젠가 나만의 독립된 공간을 갖고 거기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꿈. 그리고 그 꿈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나는 대학 진학 대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내 방, 더 크게는 내 집을 갖기 위해 나는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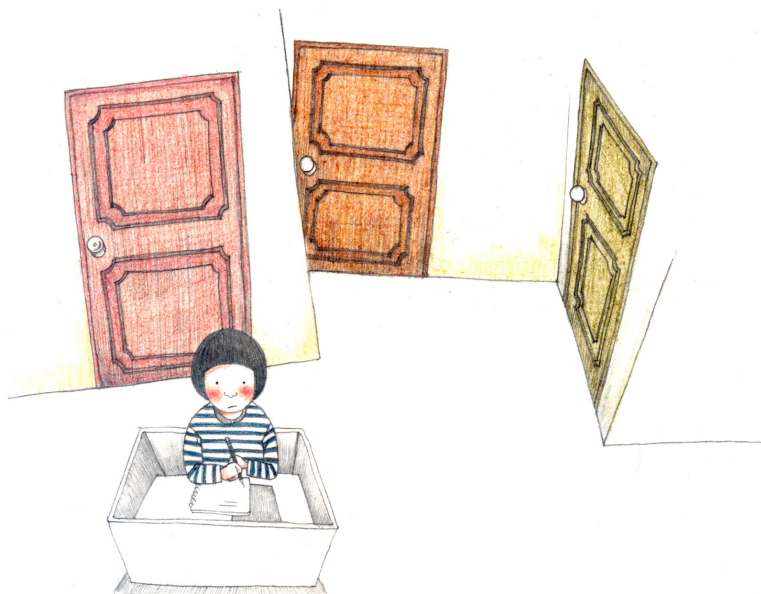
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운명은 또 다른 시험을 던져주었다. 군대를 전역하고 드디어 독립을 결심한 순간 아버지의 사고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는 큰 사고를 당하셨고 나는 그동안 모은 돈 2천만 원을 아버지의 치료비로 모두 써야 했다. 독립은 또다시 미뤄졌다.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작은 전세라도 구해보자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어렵게 다시 모은 4천만 원을 가지고 서울 근처에서 전세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여기서 두 발 뺀고 살 수 있을까’ 싶은 허름한 집이 대부분이고 마음에 드는 곳들은 가격이 터무니없었다.

여러 번의 좌절 끝에 나는 다시 길을 떠났다. 그날 밤 나는 지하철을 타고 무작정 발길이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옷가에 스며들었을 때 문득 한 가로등 불빛이 나를 멈춰 세웠다. 바로 옆에는 작은 발이 보였고 그 뒤로 아담한 빌라가 한 채 보였다. 맑은 공기가 코끝을 스치고 다른 집들과 달리 무언가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에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근처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 날 부동산을 찾아갔다. 여러 군데를 전전하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나에게 저 멀리에 있는 주택을 가리키며 물으셨다.

“저기, 저 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소름이 돋았다. 마치 운명처럼 내가 어제 잠시 발길을 멈추고 보았던 바로 그 집이었기 때문이다. 집안에 들어서자 햇빛이 사방하게 들이친다. 거실에서는 발과 산이 보이고 마음이 차분하게 고요해진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이곳에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계약을 맺었다. 가격은 무리가 없었고 부



동산 아저씨께서 흥정을 잘 해주신 덕분에 나는 비교적 저렴하게 집을 장만할 수 있었다.

단 한번도 내 방이 없었던 나는 드디어 나만의 공간을 가지게 되었다. 작은 집이지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이루고 싶었던 꿈이 이렇게 내 손에 쥐어졌다. 그 길고도 험한 시간 속에서 나는 나만의 집을 찾았고 내 삶의 작은 기적을 만날 수 있었다.

지금도 가끔 어릴 적 그 좁고 어수선한 집에서 꿈을 키우던 옛 시절을 떠올린다. 그리고 또 한 번 다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살자. 이 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그토록 기다린 내 꿈의 증거이자 나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Letter 02

어느 노부부와 딸

신미영 |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저는 동네에서 조그마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부푼 꿈을 안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장사는 쉽지가 않더군요. 어쩔 수 없이 많은 고민 끝에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폐업을 결정하고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이 생각나더군요. 장사가 너무 잘돼서 기뻐던 날도 있었고 코로나 때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아 씁쓸하게 가게 문을 닫았던 날도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손님을 만나고 헤어졌지만 유독 생각나는 손님이 있어요.

저희가 아침 10시에 오픈하고 저녁 11시에 마감을 하는데요. 토요일 아침 10시 오픈하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첫 번째 손님. 가게 문 앞에 휠체어를 세워두고 노부부와 여자 한 분이 들어

와서 바로 문 앞 테이블에 앉더라고요. 그러고는 소주 한 병, 김치 짜글이, 김치찌개와 해장국을 주문하셨습니다. 어찌나 다정한지 정말 사이좋은 가족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드실 음식은 할머니가 드리는데 다 흘리고 드시면 연신 할머니와 딸은 밥 먹다가 바닥에 흘린 밥알이나 음식들을 치우며 식사하는데도 전혀 힘들거나 귀찮게 생각하는 거 같지 않아 보였어요. 매번 바닥에 흘린 음식들까지 깨끗이 치우고 가시더군요. 그렇게 매주 토요일 아침 10시만 되면 어김없이 똑같은 음식을 주문하고 드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딸이 1만 원권을 꺼내더니 자기 이마에 돈을 붙이는 거예요. 식사하는 내내 그 돈은 딸의 이마에 붙어 있었어요. 얼핏 노부부는 70대로 보이고 딸은 50대로 보였는데 좀 웃기기도 하고 왜 그런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매주 똑같은 행동을 하고 가는 모습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자주 얼굴을 보니 조금 안면이 생긴 거 같아 계산할 때 제가 물어보게 되었어요.

“밥 먹을 때 왜 이마에 만 원을 붙이고 식사를 하세요? 그냥 좀 궁금해서요.”

딸은 웃으면서 대답을 해주더군요.

“아~ 만 원이요? 사실은 아버지가 좀 많이 아프세요. 거동도 잘 못하고 식사도 잘 못 드시는데 제가 이마에 만 원을 붙이고 ‘아빠~ 식사 다하시면 만 원 아빠 줄게. 밥 다 드셔야 드릴 거예요’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고요. 돈을 보면서 식사하셔야 밥을 다 드시길래 아빠 밥 다 드실 때까지 이마에 돈을 붙이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 아버지 운동을 시키려고 아침에 나오는 거고 사



람이 많은 곳에 가면 아버지가 눈 마주치는 사람하고 종종 싸우기도 하셔서 식당 문 열자마자 사람들이 오기 전에 식사만 하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계속 오던 노부부와 딸은 언제부턴가 가게에 오지 않았어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기를,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혹시 언젠가 그분들이 우리 식당에 왔다가 없어진 가게를 보고 실망하실까 봐 살짝 걱정됩니다. 다들 무탈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Letter 03

지리산의 중심 세석대피소

선용원 | 서울 강남구

저는 지리산의 중심 세석대피소를 지키고 있는 선용원입니다. 이곳은 해발 1600미터 고원에 자리 잡고 있지만 마치 시골집 정원처럼 시냇물이 흐르는 풍경을 품고 있습니다. 험한 산중에서도 고향 같은 '세석평전'이 펼쳐져 있어 오르는 이들에게 따뜻한 쉼을 선물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마흔 살에 국립공원공단 시험에 합격해 지리산에 부임했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은 크게 달라졌지만 자연 가까이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제 인생의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분은 대피소가 조용히 서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는 쉼 없이 해야 할 일들이 가득합니다. 탐방로를 정비하고 지리산의 동식물을 살피며 탐방객 입실과 매점 운영을 챙깁니다.

대피소와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일은 기본이고 때로는 구조 현장에 뛰어들기도 하며 행정 업무까지 함께합니다. 탐방객들을 위해 해설 프로그램을 열고 작은 영화 시간을 마련해 함께하며 청명한 밤에는 별자리를 함께 바라봅니다. 대피소가 단순한 쉼을 넘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의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힘써온 일은 ‘음식물 쓰레기 제로’ 캠페인입니다. 산에서는 남긴 한 숟갈이 그대로 짐이 되고 자연에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음식물은 소금기가 많아 거름으로 쓸 수 없고 헬기로 수거해 내려와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가져와서 깨끗하게 비우자’라는 약속을 탐방객들과 함께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다 보면 눈과 불, 눈물을 마주합니다. 겨울이면 대피소를 덮어버리는 눈, 산불을 막기 위해 달려야 하는 순간, 그리고 구조 현장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구조에 성공했을 때의 안도, 끝내 지켜내지 못했을 때의 애통함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중풍에서 회복 중이던 한 70대 어르신이 무리하게 산행 하다 구조 요청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산하였지만 그 순간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건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요.

세석대피소에서의 삶은 저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조금 부족하게 살며 조금 더 아끼며 서로를 살피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리산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산처럼 제자리에서 사람과 자연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Letter 04

그놈의 자전거

애청자

요즘 부쩍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픽시 자전거’ 그놈이 우리 집에 왔다.

얼마 전부터 자전거를 잘 탈 줄 모르는 5학년 아들이 자전거가 갖고 싶다고 졸라댔다. 보통 땀 말도 없고 자기 방에만 들어가 있는 녀석이 눈만 마주치면 “자전거… 자전거…” 했다.

내가 알던 자전거는 두 발 세 발 네 발 뭐 거기다 많이 알아도 삼천리자전거가 전부였다. 내 영역이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 넘겼다.

“둘째가 같이 노는 친구들이 전부 자전거를 타는데 혼자만 킥 보드를 타고 왕복 4km 넘는 거리를 다녀왔더라고. 지쳐서 벌써 잠든 거 좀 봐. 당신이 좀 알아보고 사줘야 할 것 같아.”

남편은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신중한 편이라 아이 키에 맞고 튼

튼한 걸로 아이 마음에도 들어야 하니 주말에 자전거 판매점에 가보겠다고 했다.

주말을 기다리는 동안, 아들은 친구가 자전거를 바꾸려고 타던 자전거를 채소마켓에 내놓았다며 내가 그걸 사면 안 되겠냐, 앞으로의 용돈에서 차감해서라도 그게 갖고 싶다고 했다.

새것이 좋을 나이인데 왜 굳이 남이 타던 걸 사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설득하는 중인데 아들과 친구는 채소마켓에 내놓은 것보다 싸게 반값에 팔겠다고 하고 아들 마음에도 그게 이미 자리를 잡았는지 우리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자꾸 그 자전거 이야기만 해댄다.

친구가 집 앞까지 자전거를 가져와서 보여주고 아들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조른 적은 없었기에 남편도 못 이기는 척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중고라는 게 언뜻 보면 쓸만하지만 어찌 다 마음에 들겠냐고 내 것이 되고 보니 바퀴는 닳을 대로 닳아 있고 브레이크가 한쪽에 있긴 한데 불안해 보이고 초보인 아들이 타기엔 안장이 높아 최대한 낮춰도 불안해 보이는 게 남편 마음에 안 드는 눈치다.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은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현관문 앞에 세워두고 누가 훔쳐 가지는 않았는지 몇 번을 나가서 있나 없나 보고 한 번 앉아도 보고 그렇게 아빠랑 나가서 자전거 배울 날만 기다렸다.

드디어 주말이 되어 남편과 아들이 나갔다. 남편은 아들이 다치는 않을까 자신이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그랬듯이 뒤에서 잡아주는 자신을 믿고 잘 탈까 뒤통무니를 쫓아다녔을 게 안 봐도 뻔하다.

한 시간이나 지났을까. 둘은 땀 뻘뻘 흘리며 들어왔고 남편은 너무나도 지쳐 있었다.

아들은 “이제 좀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며 자신감이 뽐뽐하다.

그래도 아직은 불안하니까 아빠랑 몇 번 더 연습하고 타라고 했는데 그걸 또 못 참고 아들이 나갔다.

쓰레기를 버리고 오던 남편이 말했다.

“자전거가 없는데? 친구랑 놀러 간다던데 아들이 타고 간 거 아니야? 전화해 봐.”

역시나 아들은 무슨 자신감인지 불완전한 실력으로 자전거를 가지고 나갔다. 그리고 한참 후 놀다 들어온 아이 꼴이 말이 아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반바지를 입고 나갔는데 다리에는 검은 바퀴 자국과 무릎에는 멍과 핏자국. 아고~ 소리가 절로 나왔지만 더 속상한 건 아이인 것 같아서 “좀 따갑겠지만 씻을 수 있겠어? 일단 씻고 이야기하자” 말했다.

그러자 아들은 온전치 못한 실력에 친구들을 따라가다 그만 넘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넘어진 쪽 팔과 다리를 전부 갈았고 자전거도 좀 다쳐서 수리해야 할 것 같다고 어렵게 말을 꺼냈다. 이 자전거 판 친구가 그러는데 돈이 제법 나올 것 같다고 했단다.

“자전거는 둘째치고 네가 이만하기 다행이야. 아픈 데는 없고? 괜찮아? 얼굴 안 다치고 뼈 안 부러졌으니 천만다행이다. 넘어지면서 그래도 거기까지 가고 대단하네. 이제 자전거 잘 타나 보다.”

나는 몹시도 불안한 마음에 횡설수설 댔다.

안 그래도 그 자전거를 불안해하던 남편은 훗이 휘어졌으니 바퀴도 그렇고 수리비가 제법 나오겠다며 수리비가 자전거값보다

많이 나오면 고치지 않고 아빠가 말했던 자전거로 사자고 또 한번 주말을 기다려야 했다.

매일 친구들이랑 논다고 나가던 아이의 외출이 줄어들었다.

“친구들이랑 자전거 타야 재밌는데 지금 못 타니까 그냥 안 나갈게.”

또래 친구들 무리에 끼려면 그런 자전거가 필요한가 보다. 그만 한 때 아이들과 같은 걸 하려는 맘도 알겠는데 그걸 바라보자니 또 불안해지는 게 부모 마음이다.

연일 학교에서도 픽시 자전거 단속한다고 아이들 교육하는 알림 글이 오는데도 아들은 절대 포기를 못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수리비를 감당하면서 약속을 했다.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위험하게 도로로 다니지 말 것.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은 그곳으로 다닐 것.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구비하고 탈 것. 팔꿈치, 무릎 보호대는 안 하려고 해서 헬멧은 꼭 착용하기로 했다.

그렇게 드디어 오늘 휠과 타이어를 교체했다. 중고 자전거를 사서 수리비까지 더하니 새 자전거를 사는 것보다 비싼 값을 치른 자전거가 되었다.

부디 사고 없이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운행하길 바란다.

Letter 05

포카를 아시나요?

애청자

여 성시대 가족들의 어린 자녀분들은 부디 이런 사건에 휘말리시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 올립니다.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정확히 지난 8월 8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벅르고 벅르다 일 년 만에 친구들 만나서 시원하게 생맥주 한잔했던 역사적인 날이었거든요. 얼마나 웃고 떠들었던지 엄청나게 먹었는데도 헤어질 땐 배가 다시 고플 정도로 유쾌한 시간이었죠. 꽤 늦게 집에 들어와서 씻고 잘 준비를 하는데 중학교 2학년인 큰딸아이가 방에서 나오더라구요.

“왜 아직 안 자고 있었어? 엄마 기다린 거야?”

“응.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기다렸어. 사실 어제 얘기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데 나 때문에 걱정하느라 재밌는 시간 못 보낼까 봐 어제 말을 못 했어.”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래도 엄마 먼저 생각해 주는 착하디착한 딸아이 엉덩이를 토닥이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얘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의 손을 잡자마자 딸아인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다독이며 진정이 될 때까지 기다린 끝에 들은 이야기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제 딸은 아이돌 포토 카드를 사려고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고 상대방에게서 카드는 몇 번 받지도 못하고 도리어 돈을 더 보내라는 협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애가 그 많은 돈을 대체 어디서 냈지? 그리고 물건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다면서 돈은 왜 계속 보냈을까?’

아이의 말을 듣는 내내 당장 다그쳐서 대답을 듣고 싶었지만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이가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딸은 상대방에게 보낸 돈은 다 자기 돈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른 구매자들한테서 받아서 모은 거였대요. 아이돌 포토 카드는 여러 장이 세트로 되어 있는데 각자 원하는 멤버가 다르다 보니 혼자서 세트를 다 사긴 부담스럽고 누군가 한 사람이 사서 나누는 방식으로 구매를 했다는 거죠. 딸아이가 좋아하는 아이돌 포토 카드는 7장이 한 세트였고 저희 아이는 그중 1장만 필요했기에 다른 6장을 나눌 사람들을 모아 그 사람들과 n분의 1로 가격을 나누는 후 송금받은 돈을 판매자 A한테 보냈다고 해요. 그러자 며칠 뒤 바로 한 세트가 왔고 아이는 편의점에서 택배를 픽업하자마자 송금받은 6명에게 나머지 카드를 나누어 보냈다고 합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진행이 됐대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 아이에게 필요한 포토 카드를 문의해 오는 사람들이 더 생겼고 아이는



중간 역할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세트를 나눌 사람들을 모아서 최초 판매자 A에게 보내는 일을 했는데 두 번의 거래 후 A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배송을 미루기 시작했네요.

자기도 B라는 사람한테 카드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못 받았다, 택배비가 없으니 돈을 더 보내 달라, 해외 배송을 받아야 해서 비싸니 추가 비용을 보내라, 또 다른 C한테서 구매하려고 했던 건데 가격이 올라서 돈이 더 드니 가격이 오른 만큼 너도 더 보내줘야 한다 등 온갖 핑계와 구실을 대며 돈을 계속 요구했던 거예요.

딸아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미 송금한 돈과 카드를 날릴까 봐 마침 생일날 받아둔 용돈으로 계속 돈을 보내다가 더는 못 보

낸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A는 ‘돈을 더 안 보내면 찾아오겠다, 사기라고 주변에 다 알리겠다’ 이러면서 오히려 말도 안 되게 딸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만에 백 통이 넘는 전화와 DM을 딸에게 보냈더라고요.

A는 자신을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소개했었는데 몇십 장에 걸친 대화 내용을 일일이 다 출력해서 읽어보니 어느 순간부터 말투도 바뀌고 표현도 자극적으로 변한 것이 ‘이거, 이거 이 사람 혼자 아니다! 여럿이 조직적으로 공모해서 벌이는 사기구나!’ 싶었어요. 그러니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이 폰에서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DM은 더 이상 읽지 않은 채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진술서와 이체 내역, 캡처한 대화 내용 등을 모두 출력해 제출한 후 경찰서에서 4시간 넘게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형사님이 A와의 첫 대화부터 마지막까지 딸에게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타이핑을 하는데 딸아이가 몇 번이나 울었어요. 나중에 경찰서를 나오면서 많이 무서웠냐고 물으니까 그게 아니라 진술하다 보니 자기가 왜 그랬는지 너무 한심하고 답답해서 계속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서 제출하고 3일 만에 형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A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맞았다는 말에 깜짝 놀랐고요. 그 학생도 다른 B라는 사람한테서 제 딸과 똑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네요. 알고 보니 B는 이런 사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지 A한테 돈을 더 받아내는 방법과 거친 메시지까지 써서 알려줬더라고요. 그러고는 모든 계정과 연락처를 끊고 잠적해 버렸대네요. 그러니 남은 A는 자기에게 돈을 보냈던 다른 구매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제 딸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다고 하더라

고요. 형사님은 A 어머니와 통화했는데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며 조직적인 범죄는 아니고 학생의 잘못된 판단으로 생긴 일 같다고 통화를 한 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A 학생 어머니의 번호를 받았고 한참을 망설이다 통화했는데 다행히 그 어머니는 정말 착하신 분이었고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목소리까지 떠셨어요. 중간중간 말을 잊지 못하며 연신 죄송하다고 울먹이기까지 하셔서 제가 오히려 더 안정을 시켜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큰 경험을 했으니 앞으로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다시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며 좀 더 아이들에게 신경 쓰자고 말씀드리면서도 저는 상황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저 자신이 한심해서 뒤로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A의 어머니가 바로 환불을 해주셔서 고소는 취하했고 카드 구입을 위해 딸에게 돈을 보냈던 모든 사람에게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좌를 받아 환불을 마치기까지 약 3주 가까이 걸렸네요.

지금 여성시대를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자녀분들이 포토 카드에 관심이 많다면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이런 거래사기에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라고 이렇게 제 경험을 나눕니다. 휴대폰에 앱만 깔면 이용할 수 있는 너무나 손쉬워진 인터넷 뱅킹, 편리한 편의점 택배, 각종 채팅 프로그램 및 디엠 등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물품 거래와 금융 사고들, 앞으로 정말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좋아하는 배우의 책받침 한 장만으로도 가슴 벅차 했던 옛 시절이 오늘날라 더 그립습니다.

Letter 06

길에서 만난 치매 할머니

이의열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오늘 밤에도 어김없이 아내와 함께 퇴근해 함께 늦은 저녁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10시가 넘어 걷기 운동을 나갔다. 몸은 고단하지만 벌써 수년째 ‘오십 넘으면 매일 같이 운동하기’라고 서로에게 약속했기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늘 한다.

열은 가로등을 벗 삼아 오늘 있었던 이런저런 얘길 하며 걷고 있었다. 가로등 빛만 있는 어두운 공원 쪽으로 걷는데 저만치 앞에서 뚫어지게 우리 부부를 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우리는 계속 걷고 있는데 그 시선은 움직이지 않고 계속 우릴 주시한다.

안경을 고쳐 쓰고 자세히 본다. 가까이 가니 조금 구부정한 작은 몸의 할머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인지 우리를 보더니 “애들아, 어디 갔다가 이제 왔어? 깜깜해졌는데?” 그러더니 우리 얼굴을 확인하고는 중얼거리시며 재빨리 건물 코너로 몸을 돌리

신다. 우리도 건물을 끼고 돌아가 보니 문 닫은 가게 앞 의자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다.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 “할머니가 누구 기다리시나?” 하니 아내가 “그러게. 왜 저기 어두운데 혼자 계시지? 길을 잃으셨나?” 애길 하며 조금 걷다가 순간 매일 오는 ‘안전 안내 문자’ 생각이 나서 걸음을 멈추고 문자를 보니 73세 할머니 실종 신고가 눈에 띄었다. 거기에는 <이름, 나이, 성별, 인상착의, 키, 몸무게, 옷과 신발 형태 그리고 전화기 표시 옆에 182[경기남부경찰청]> 이렇게 되어 있었고 계정을 누르니 사진과 담당 경찰 전화가 있었다. 계정에서 본 사진과 옷차림이 앉아 계신 할머니와 동일했다. 서늘한 날씨인데 옷이 얇아 보였다. 아내는 확인하자마자 할머니 쪽으로 급히 달려가 말을 건다.

“할머니~ 누구 기다리세요? 물 좀 드릴까요?”

할머니는 어둑한 건물 앞에서 말을 거는 아내와 나를 살펴보고 안색이 좋아졌다가 금세 아니라는 듯 굳어지고 바닥에 앉아 무언가를 끄적이며 중얼거리셨다.

나는 재빨리 112 신고를 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장소 확인시켜 드린 후에 출동한다는 연락을 받고 기다렸다.

여전히 할머니는 쪼그리고 앉아 멍하니 우릴 보다가 다른 데를 보다가 하신다. 어두워서 밝은 곳으로 가자고 하는 아내의 말에도 묵묵부답이다. 혹시라도 다른 데로 가실까 하여 아내가 계속 말을 시킨다. 대답이 없고 멍하니 바라만 보신다.

그렇게 의자에 앉아 계신 할머니 곁을 지키며 5분여를 기다리니 순찰차가 왔다. 경찰관에게 간단히 설명하고 할머니께 안내하니 경찰관이 묻는다.

“할머니~ 이름 아세요? 이름이 뭐예요?”

할머니가 본인의 성함을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신다.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하니 우릴 보며 “애들하고 놀러 나왔지” 그러며 웃으신다. 다시 경찰관이 “언제 나오셨어요?” 하니 “한 삼일 되었지” 하신다.

그렇다. 치매가 오신 모양이다. 경찰관이 이름, 인상착의 확인 다 하고 신고자인 내 인적 사항을 수첩에 적는다. 잘 모셔 드리라고 부탁드리고 아내와 다시 걷기 운동을 했다.

아내와 나는 서로의 눈썹미로 할머니가 가족을 찾게 되었음에 잘 되었다고 서로를 칭찬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작년에 경찰관이 되어 근무 중인 큰아들 이야기를 했다.

“우리 아들도 저렇게 일을 하겠지? 친절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내의 말에 “당연하지. 녀석은 친절하게 할 거야”라고 했다. 코스를 걸으며 할머니 이야기와 경찰들의 일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전화가 왔다. 아까 할머니를 모셔간 경찰관이다.

“여보세요? 아까 할머니님 모셔간 경찰관입니다. 가족에게 잘 인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할머니 가족들이 고맙다고 선생님 연락처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감사 표시하고 싶다고요. 어떠신가요?”

나는 뭐라 생각하기도 전에 말이 나갔다.

“아뇨. 잘 도착하셨으면 되었습니다. 가족들께 잘 모셔 달라고 해주세요.”

경찰관은 “정말이세요?” 되묻는다.

“예~ 잘 가셨으면 되었습니다. 경찰관님도 수고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경찰관은 앞에 가족들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고맙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선선하고 또 쌀쌀한 걸기를 마치고 집에 도착해서 식탁에 앉아 아내와 물을 마시며 할머니께서 잘 도착하셔서 다행이라는 말을 주고받았다. 아내가 그린다.

“실은 아까부터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님 생각이 났어. 눈물이 나서 혼났어.”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나도 그랬다.

“나도 엄마 생각이 났어. 엄마랑 닮으셨어. 그 할머니…”

어머님도 하늘나라 가시기 전 치매였다. 농사짓는 가정주부로 사셔서인지 온순한 치매를 앓으셨다. 집을 나가시면 찾으러 다닌 일도 생각났고 계실 때 자주 얼굴 뵙지 못해 죄송했던 생각이 저 밑에서부터 죽 올라왔다. 방에 들어간 아내 없는 식탁에 앉아 말 없이 어머니를 생각했다.

“오늘 밤은 잠이 잘 안 올 것 같다.” 혼잣말을 했다.

학생 시절 언제나 넉넉한 미소로 나를 반기시고 집을 나설 때는 “아들~ 밥 꼭 잘 먹고 다녀. 밥 잘 안 먹으면 나이 들어 고생해~” 그러며 용돈을 쥐여주시던 어머니.

가족을 잃어버리고 찾는 그 심정을 이번 기회로 잘 알게 되어 감사하다. 여러분들도 ‘안전 안내 문자’가 오면 한 번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족을 잃어버려 애타는 가족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경찰관 그리고 가족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 어머님 잘 모시고 행복하세요.

Letter 07

이만하면 참 잘살았네요

김숙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배르르~ 뽀르~ 뽀르~ 뽀르르~”
창가에서 들리는 가을이 오는 소리. 계절은 탈바꿈하고 있네요.

우리 농부들도 계절의 흐름에 가을 준비와 겨울 준비를 위해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무더위에 죽으면 다시 뿌리고 또 뿌렸습니다.

요즘은 고민이 많아 잠도 안 오고 생각이 많네요.

왜냐고요? 내년 3월 큰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은 본인들이 알아서 다 준비한다고 하는데 우리 큰아들은 힘든 코로나 시절을 보내서인지 부모인 저희가 다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본인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결혼을 계속 미루는 것 같아서 제가 서둘러서 하라고 결혼식은 책임지겠다고 해서 준비가 시작은 됐

습니다. 결혼식장 계약금을 제 주머니에서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 마음만 많이 쓰입니다. 여유만 있다면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여름 농사 끝나고 예비 며느리 예물 한 세트를 해주고 왔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감사드린다며 좋아하네요. 저희도 행복하고 고마웠습니다.

착한 며느리 말 한마디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결혼할 때 이것저것 많이 받고도 적다고 한다던데 우리 며느리는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젤 잘한 게 이쁜 며느리를 모시고 오는 거네요.

이렇듯 해주고 싶은 건 많은데 그놈에 돈들은 어디에 있는지 로또라도 사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렇듯 걱정이 많아서인지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나를 늘 걱정해 주고 사랑해 주는 언니가 전화를 했어요.

“네가 저번에 잡채 먹고 싶다고 해서 오늘 했는데 먹으러 와.”

언니 집으로 갔어요. 토마토 농사를 짓는 우리 집의 오랜 단골이었던 언니랑 친자매 이상으로 가까워져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언니 몸도 아파서 힘들 텐데 내가 먹고 싶어 하는 잡채를 만든 겁니다. 맛나게 먹으면서 언니와 대화하면서 스트레스도 풀어보았어요.

언니가 다정하게 웃으면서 “아들 장가보내는데 돈은 모자라지 않니?” 하는 겁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얼마 전 언니 남편인 형부가 언니에게 비상금이 있으면 빌려 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좀 있어 봐. 숙자에게 먼저 물어보고.”

“아니, 왜 숙자 씨한테 물어봐?”

“아들 장가보내는 데 돈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고 나중에 당신 빌려줄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권은 저에게 있다는 말에 울고 말았습니다. 내가 참 잘살아왔구나 싶었습니다.

친언니 같은 언니와의 만남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니의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한참을 울먹였습니다.

언니의 말에 제 고민이 조금은 안도로 바뀌었어요. 빌려 쓰고 열심히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요.

제 곁에는 이런 언니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참 잘살아온 것 같아요.

인생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겠지요. 제가 베풀면 그만큼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들 결혼식 준비 잘해보겠습니다.

다음 편지는 아마도 착한 며느리에 대한 자랑일 겁니다.

Letter 08

혼자만의 힐링 여행

애청자

50 대 직장인인 저는 연이은 야근과 보고서, 끝없는 회의에 지쳐 있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머리는 휘청거릴 지경이었죠.

며칠 전에는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밤 11시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그 후유증으로 어깨와 허리까지 빠근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떠나자!”

휴가를 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말이죠. 아내와 딸에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잠깐 여행 좀 다녀올게.”

“혼자? 괜찮겠어?”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응. 잠시 머리 좀 식히고 올게. 심호흡 좀 하고.”

토요일 아침, 기차에 올라 한적한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일과 스트레스 다 내려놓자.’

바닷가에 도착하자 시원한 바람과 파도 소리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모래 위에 앉아 발을 담그고 한참 동안 멍하니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와~ 이렇게 편안할 수가!”

저도 모르게 새어 나온 혼잣말에 옆에서 낚시하던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다 앞에 서면 누구나 마음이 편해지지요.”

저는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오늘 하루는 그 말이 진짜 실감 나네요.”

점심은 작은 해변 카페에서 해산물 파스타를 시켰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며 휴대폰도 꺼놓고 책을 펼쳤죠. 책을 읽는 동안 잠깐 졸음이 쏟아졌고 카페 주인 분이 살짝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손님이시네. 혼자 오셨나요? 날씨가 참 좋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잠깐 혼자 여행을 즐기고 있어요. 이렇게 조용한 시간, 정말 오랜만이네요.”

카페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고 한쪽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함께 온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군요.

순간 혼자 여행 온 저는 잠시 시샘하듯 부러웠다가 이내 미소 지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혼자라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삶은 참 묘하구나.’

카페에서 나오자마자 작은 골목길을 따라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골목 저 끝에는 오래된 등대가 있었고 걸어서 등대에 도착해 계단을 올라가니 바다 전체가 내려다보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있더군요.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늘 하루만으로도 충분히 힐링했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두었던 삶의 여유를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등대에서 내려와 해변을 따라 걷다가 작은 갯바위에 앉아 잠시 바다에 발을 담갔습니다. 파도가 발목을 간지럽히며 살쥍쥍 밀려오자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조개를 주웠던 기억, 친구들과 모래성을 쌓던 기억, 그리고 대학 시절 첫 연인과 바다를 바라보던 기억까지. ‘역시 바다는 기억과 감정을 모두 담은 그릇이구나!’ 싶더군요.

해가 지고 어둑해졌을 땐 근처 펜션에 체크인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 야경과 파도 소리가 마음을 더욱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며 소소한 간식과 커피를 즐겼습니다. 그때 펜션 주인아저씨가 문을 두드리며 작은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저녁에 모닥불 피놓고 작은 음악회를 하는데 구경하시겠어요?”

“좋습니다!”

저는 흔쾌히 답했습니다. 모닥불 앞에서 어쿠스틱 기타 소리를 들으며 주변 사람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혼자 여행 온

사람도 있었고 커플도 있었지만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파도 소리와 기타 선율을 느끼며 깊은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 내 마음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구나~’

모든 스트레스와 피로를 날려버리고 다음 날 기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1박 2일이었지만 정말 좋았어. 충분히 재충전이 되더라고.”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이제 내일부터 힘내자!”

집에 도착하니 딸이 달려와 묻더군요.

“아빠~ 여행 재미있었어요?”

“응. 마음껏 쉬고 아빠만의 시간을 즐겼어. 이제 내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 완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힘든 일상일수록 잠시 멈추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혼자라도 자연과 책, 바다와 일몰 속에서 지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다는 것과 그런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가족을 만났을 때 내가 더 활기차고 웃음 가득해질 수 있다는 것어요. 휴가란 꼭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시간을 위한 선택임을 하루 온전히 경험하며 깨달았습니다.

Letter 09

위층에서 온 손편지

김영미 | 충북 제천시

며칠 전에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문에 웬 봉투가 걸려 있었어요. 집으로 들어와 꺼내보니 케이크와 함께 손편지가 들어있더군요. 그 편지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적어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윗집에 살고 있는 세 살배기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젊은 부부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이사 온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네요. 이사 오고 초기에 몇 번 방문했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발걸음 소리도 커지고 저희가 타 지역에서 이사를 온지라 손님들이 종종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아래층에 불편을 드린 것 같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



지 너그럽게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불편
드리지 않도록 더 조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매스컴에서 층간 소음으로 이웃 주민끼리 다투고 살해까지 연
결되는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 현실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
가는 젊은 부부가 우리 아파트에 같은 입주민으로 지내고 있다는
것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줬습니다.

여성시대를 통해서 이 편지를 전해드리다면 이 각박한 세상이

온기로 조금이나마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엄마 없는 조카들과 우리 아이 두 명, 총 네 명의 아이를 키워왔기에 아무리 조심을 시켜도 부모 마음과는 달리 아이들이 아래층에 피해를 주는 시간을 잘 압니다. 같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기에 위층 젊은 부부의 마음을 알고도 남아서 이따금 쿵쿵 뛰는 소리가 들리면 ‘또 아이가 신이 났구나. 엄마가 주의시키느라 애 좀 먹겠구나’ 하면서 지나치곤 했는데 이런 손편지까지 받으니 참 행복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다들 자식 키웠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조금씩 더 배려해 주면 우리 아파트처럼 따뜻한 동네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편지 쓰는 김에 우리 아파트 소장님 칭찬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출근하려고 주차장을 나갈 때마다 꽤 이른 아침인데도 어떤 분이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버려져 있는 휴지들을 주워 담는 광경을 종종 봤습니다. 저는 ‘입주민분이 좋은 일 하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 모습을 거의 날마다 보면서 지나다가 최근에야 아파트 관리소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더니 그분이 소장님이셨더군요. 다들 떨어진 휴지는 내가 줍기보다 청소하는 분들이 치우시겠지 하고 지나치기 쉬운데 몸소 실천으로 우리 동네를 깨끗한 단지로 만들어주시는 소장님! 작은 일이라고 하셨지만 보여주시는 모습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층간 소음에 미안해하는 젊은 부부가 살아서 오가는 것이 넘치는 우리 아파트 소식 듣기만 해도 기분 좋지 않네요. 제 편지가 꼭 소개되어서 윗집 새댁에게 제 마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Letter 10

장인어른과 함께한 일주일

박광우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20 16년 처제의 결혼으로 손아랫동서가 새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아내와 처제의 허락을 얻어 동서와 생애 첫 해외 자유여행을 떠났다.

나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고 일하다가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 해외로 자유여행을 떠나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낯선 곳에 가서 보호자 없이 자신을 챙기는 것에 두려움도 있었다. 자유여행 경험이 많은 동서를 따라 우리 둘은 태국 곳곳을 누볐다. 아내와 아이들이 있으면 가지 않을 것 같은 저렴한 숙소와 로컬 식당에 다니고 하루에 몇 킬로미터를 걷고 또 걸으며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

사실 그 여행 계획에는 장인어른도 함께였다. 딸 셋을 기르며 항상 보호자로 살아온 아버님이기에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여행

을 선물하자고 동서가 제안했고 그렇기에 아내들도 허락했다. 하지만 아버님은 회사 일로 가시지 못해 우리 둘만 다녀왔다.

그 후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아버님은 70대 중반이 되셨고 허리디스크가 생겨 불편해하신다. 종종 그때 같이 가지 못한 일을 아쉬워하지만 아버님의 연세와 병으로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울 거로 생각했는데 동서가 올해 초 또 여행을 제안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아버님과 가는 자유여행이 진짜 불가하니 같이 모시고 가자는 것이다. 아내와 처제는 아버님 건강을 걱정했지만 아버님의 의지가 강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도 많이 회복하셨다.

결국 아버님의 의지와 우리의 설득으로 남자들의 해외 원정대가 꾸려졌다. 장인이른 그리고 사위 2명! 좀처럼 이해되지 않을 이 조합은 치앙마이를 목적지로 7월 중순 한국이 가장 뜨거울 때 비행기에 올랐다. 동서는 이번 여행을 계획하며 저렴한 숙소, 저렴한 로컬 음식, 최대한의 도보 이동으로 배낭여행족 같은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했다. 남자들끼리 할 수 있는 힘든 경험을 하겠다는 것이 동서의 목표였다. 아버님도 동의하시어 우리는 대학생들 여행처럼 일정을 짜고 실제 대학생들처럼 이동하고 먹었다.

저렴해서 염려한 숙소는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다. 나와 아버님이 같이 방을 쓰고 동서는 다른 방을 혼자 쓰며 식사를 준비했다. 아버님의 좋은 컨디션을 위해 아침은 가져간 밥술에 밥을 짓고 장모님이 준비해 주신 반찬으로 식사했다. 그리고 다 같이 길을 나서서 곳곳을 걸어 다녔다. 아이가 같이 갔다면 더 깨끗한 숙소, 더 깨끗한 식당을 찾고 비가 와도 더워도 생각할 것이 많을 텐데 남자 3명이니 지나가다 식당이 보이면 들어가고 볼만한 것이 있으면 들어가고 비가 오면 적당히 비를 맞으며 돌아다녔다.

동서는 아버님이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해드리고 싶어 했다. 지저분하지만 맛있다는 로컬 국숫집에서 국수를 먹고 말도 안 통하는 먼 가게를 찾아가 풍미 좋은 갈비를 먹었다. 그리고 새우 낚시터에 가서 아버님 생애 처음이라는 낚시도 했다. 잡은 새우로 만든 새우 요리에 한국에서 가져간 초장을 찍어 먹었다. 피부관리숍을 예약해 남자 3명이 나란히 누워 피부 관리도 받았다. 밤에는 노상 술집에 가서 같이 술을 마시고 유명하다는 재즈바에 가서 재즈 음악을 들었다. 숙소에 돌아와서는 나란히 마스크팩을 하고 침대에 누웠다. 모든 것이 아버님도 나도 처음 하는 경험이었다.

밤이 되면 우리는 가득 사놓은 열대 과일을 가운데 놓고 냉장고에 넣어둔 술을 꺼내서 마시며 한참을 이야기했다. 그날 여행 다닌 곳의 느낌부터 사는 얘기, 직장과 자식 얘기. 이야기는 이어져 두세 시간이 지난 깊은 밤에야 방으로 흩어졌다.

치앙마이 여행 온 가족들이 우리를 보면 어떤 사이인지 한 번씩 물어보셨다. 70대 남성과 40대 남성 둘이니 아버지와 아들이라 해도 어머니가 안 보이고 궁금증이 더했을 것이다. 그래서 “장인어른이고 저희가 사위들입니다~” 하고 답하면 이런 조합으로 여행 온 사실에 무척이나 신기해하고 부러워했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지났다.

아내와 처제는 매일 같이 우리에게 당부했다.

‘무리하지 마라. 아빠 생각해라. 웬만하면 택시 타고 깨끗한 식당에 가라!’

하지만 아버님은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셨다. 그리고 이 시간을 소중히 즐기셨다. 결혼해

서 한 여인의 남편으로 그리고 딸 셋의 아버지로 아버님은 여행을 떠나도 항상 배려하고 챙겨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마 이번 여행에서 아버님은 생전 처음 마음 편안하게 당신만을 생각하는 여행을 하셨을 것이다.

여행 마지막 날 숙소에서 어디가 가장 좋았느냐고 여쭙보았다.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함께 받은 피부 관리와 새우 낚시가 한 번도 안 해봐서 신기하고 좋았다고 하셨다.

돌아와서 힘들지 않았냐는 딸들의 질문에 아버님은 “힘들지 않고 내내 좋았다”라고 하셨다.

아내는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 아빠, 아들 없는 거 아쉬워했는데 아들들이랑 여행도 다녀오고 소원 푸셨네.”

그리고 나와 동서에게는 아버지 모시고 다녀주어 고맙다고 했다. 대단한 효도를 하기 위해 여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 나도 그동안 아내와 딸을 먼저 생각하는 여행자였는데 이번에는 여행을 충분히 즐기며 쉬고 왔다. 그저 더 나이 드시기 전에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 후회하기 전에 다시없을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다. 우리는 발 빠르게 여행하며 찍은 사진을 인화해 앨범으로 정리해서 아버님께 선물로 드렸다.

아버님과 같이 한 모든 것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늦게까지 나눴던 모든 이야기도 머리에 오래 남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의 이번 여름이 정말 오래 가슴에 남을 것이다. 그저 지금처럼 건강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같이 여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Letter 11

내 인생의 마지막 궤도

변운택 | 충북 제천시 탑안로

저 마다의 하루가 분주하게 시작되는 아침 8시. 오늘도 나는 차에 올라 시동을 겁니다.

32년간 기적 소리 대신 쇠망치 소리를 벗 삼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차의 맥박을 짚고 숨결을 고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강산이 세 번 변하고도 남은 세월 동안 나의 청춘과 장년은 기름때 뱀 작업복과 함께 철도 차량 정비고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은퇴 후 아파트의 새벽을 지키고 시청의 한편에서 조용히 일하며 새로운 길을 걸었지만 마음 한쪽은 늘 허전했습니다.

그러다 4년 전 우연처럼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노치원, ‘노인 유치원’의 운전원.

처음에는 그저 마지막 직장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어르신들을 모시며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철길이 세상을 이었다면 지금 제가 달리는 이 길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고 어르신들의 하루를 세상과 연결해 주는 소중한 길이라는 걸.

비 오는 날이면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 위로 “기사님, 운전 조심하~” 어르신들의 나지막한 걱정이 없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 아침엔 혹여 차가 미끄러울까 어르신들 발이 시릴까 염려되어 거북이걸음으로 골목길을 빠져나옵니다.

숨 막히는 여름엔 에어컨을 가장 시원하게 틀어드리고 칼바람 부는 겨울엔 미리 히터를 켜 훈훈하게 데운 차로 어르신들을 맞이합니다.

날씨의 궂음은 고됨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향한 제 마음의 온도를 더욱 뜨겁게 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즐거운 일도 넘쳐납니다. 차 안에서 재미난 이야기꽃이 피어날 때 머느리 흥을 보다가도 금세 아들 자랑으로 넘어가시는 어르신의 입담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꼬깃꼬깃 쥔 손으로 사탕 하나 건네주며 “고맙다” 속삭이시는 그 모든 순간이 제겐 참 따뜻하고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시내 아파트를 나설 때 손 흔드는 자녀들의 모습, 시골 마을 어귀에서부터 마중 나온 할머니의 강아지를 볼 때면 저는 어르신들의 하루를 ‘안전하게’ 여닫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옵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쇠해가는 어르신의 모습을 볼 때 어제 나누었던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되물으실 때는 마음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좁은 골목길을 아슬아슬하게 운전하며 혹시나 작은 충격이라도 갈까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 긴장의 순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큰 보람이 있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외롭지 않게 하루를 보낸다.”

이런 어르신들의 한마디. 집 앞에 내려드리며 “내일 또 봅시다”라고 나누는 작고 따뜻한 약속. 어깨를 툭 치며 건네시는 무언의 신뢰. 그 모든 것이 제게는 그 어떤 훈장보다 소중합니다.

32년 철도원의 삶이 나라의 동맥을 위해 달리는 길이었다면 지난 4년간의 이 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는 따뜻한 모세혈관 같은 길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길을 달리던 기차와 달리 이제 저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묻어 있는 골목길을 따라 굽이굽이 달립니다.

오늘도 저는 어르신들의 하루를 신고 출발합니다. 이 길이 제 인생의 마지막 궤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길 위에서 저는 가장 따뜻하고 인간적인 풍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르신들의 웃음과 온기를 연료 삼아 달리는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운전원입니다.

Letter 12

저는 억울합니다

임영빈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로

저 희는 67세 동갑내기 부부인데 요즘 들어 제가 잘못된 것도 없는데 아내의 구박이 심합니다. 당당이 여러분 저희 부부 심판 좀 봐주세요.

휴대폰 사진을 찍어도 저는 가로로만 찍는데 아내는 세로로만 찍고 집안이 더워서 에어컨을 틀면 아내는 춥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는 어느 부부에게나 흔히 있는 현상이려니 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저녁 때 일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갑자기 아내가 옆에 앉더니 “여보, 우리 이젠 자리를 정하자” 그러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어제와 같이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아내의 “한쪽에만 계속 앉아 있으니까 소파 쿠션이 가라앉잖아요” 그 잔소리가 생각나서 소파의 왼쪽에

서 오른쪽으로 옮겨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쪽으로 도망가느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자리를 정하자고 해서 이젠 오른쪽으로 정하려고 한다고 했지요. 그때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어이 없어하더라고요.

아내의 설명인즉 최근에 교회에서 에어컨 바람 때문에 자리를 매주 바꾸어서 앉았었는데 이제는 날씨도 선선해지니까 ‘자리를 정하자’라는 뜻이었대요.

지난주 교회에 다녀오면서 이젠 자리를 정해야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서론도 없이 “자리를 정하자”라고 해놓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요? 제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오늘은 아들네 열무김치를 담가 준다며 아침부터 분주히 만들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조금 급하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내는 양손에 고춧가루 등 양념이 잔뜩 묻어 있는 상태로 턱으로 싱크대 쪽의 양념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것 좀 가져다줘요.”

저는 나름대로 성의껏 도와주려고 싱크대 쪽으로 빨리 이동해서 양념함을 열어봤더니 소금, 설탕, 고춧가루, 참기름, 후추, 볶은 깨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으로 주느냐고 물었더니 이번에는 “그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소금 통을 주었더니 “그거 말고 누런 거.” 그래서 뚜껑이 노란 후추통을 주었더니 “열무김치에 누가 후추를 넣어?” 화를 냈습니다.

이것저것 건네주기를 한두 차례 더 반복한 후에 마무리는 되었지만 아내가 찾는 것은 열무김치에 마무리로 뿌릴 누렇게 볶아진 ‘볶은 참깨’였습니다. 정확한 품명을 말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아내의 속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열무김치에 볶은 참깨를 뿌리는 것을 아는 남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요즈음 아내는 주어나 목적어 없이 동사만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고 정확한 단어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지 “이거~ 저거~”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떤 때는 대뜸 “보냈어요?” 그렇게 물으면 택배를 보냈느냐고 묻는 것인지 손자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느냐고 묻는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갔다 왔어요?”

물으면 병원에 갔다 왔느냐는 것인지, 산책을 갔다 왔느냐는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무조건 못 알아듣는 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니 저는 억울합니다.

아내는 “같이 산 지가 38년이나 됐으니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요.”

그러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저만 답답하다고 합니다.

Letter 13

시골 마을 이야기

이방인

저는 시골 고향에서 14년 정도 살다가 대도시에서 25년 정도 거주한 다음, 우연히 연고도 없는 한 마을에 이사를 와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노인들뿐인 동네에서 특별히 사람 만날 일도 없어 조용히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는 일로 시간을 보냈지요.

그런데 이사를 온 지 3년이 되었을 쯤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도시에서 살던 50대 후반의 아주머니가 집과 땅을 사서 이웃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아주머니는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받아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는 이곳 고향마을로 다시 돌아온 거라 하셨습니다.

삶이 외롭고 서러운지 자주 서러운 표정으로 거친 말과 어떨 때는 심한 욕설을 입에 달고 사셨지요. 집에서는 개나 고양이한테

또 밭에서는 잡초와 참새한테 욕을 해댔고 동네 사람들 흉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참 힘들고 외로워 보이더군요.

그래서 종종 지나가던 길에 제가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리면서 뭐 도울 일이 보이면 손을 거들어주곤 했습니다. 저는 건축 일을 했기 때문에 뭐든 똑딱똑딱 잘 고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몇 번 도와주니까 나중에는 아주머니께서 집에 수리가 필요할 때마다 “삼촌~ 나 집에 뭐 좀 도와줘. 급해서 그래” 하면서 언젠가부터는 스스로 도와주던 일이 아주머니의 부름에 불려 가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빈도는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3~4년을 아무 대가 없이 도와줬는데 그 사이 아주머니는 재혼도 하고 농사일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셨더군요.

그런데 집에 아저씨가 계시는데도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자꾸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이고~ 삼촌~ 너무 고마워. 삼촌을 위해서라면 내가 똥을 못 할까. 삼촌은 나한테 가족같은 사람이요.”

문제는 다른 동네 아주머니들도 제가 여러 번 도와준다는 소문을 들으셨는지 자꾸 집에 고칠 게 있을 때마다 저를 불러내셨고 인건비는 커녕 가끔 만 원 한 장 받으면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 일할 때는 잠깐 뭐 하나만 수리해도 건당 10만 원, 일당은 2~30만 원을 받았었는데 이 동네에서 저는 그냥 공짜! 또는 만 원짜리 인부가 되어있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삼촌~ 항상 나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나는 돈은 없으니까 상 추라도 줄게.”

참고로 저도 텃밭 농사를 지으니 상추라면 아주 넉넉하고 오히려 남아도는 수준이라 도시의 지인들에게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아주머니께서 직접 들고 오셨으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이거 참 입이 씹쓸했어요.

“근데 이 근처에 땅 나온 거 뭐 없을까? 은행에 돈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자도 얼마 안 되고 땅을 사는 게 낫겠더라고.”

“글쎄요. 그런 건 저 아래 부동산에 가보셔야죠.”

“이미 가봤지. 근데 쓸 만한 땅이 없어서 내가 직접 찾아다니는 거야.”

돈이 없어서 상추로 고마움을 갚겠다더니 나 참 어이가 없더군요.

그렇게 몇 개월 후 정말 그 아주머니는 큰 도로가 인접한 땅을 무려 2000평이나 사들였습니다. 평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한다니까, 아니 그게 대체 얼마인가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를 따라서 자꾸 제게 일을 시켰던 또 다른 할머니께서도 이릅니다.

“나 우리 집 뭐 좀 도와줘요.”

“할머니~ 제가 지금 바쁜데 급한 일이세요? 그럼 정말 잠깐만 봐드릴게요.”

그렇게 그 집으로 잠깐 일을 거들어드리고 평소 궁금했던 걸 여쭙봤지요.

“근데 자식들이 주말마다 자주 놀러 오시는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안 도와주나요?”

“아이고~ 자식들은 뭐 시켜 먹기가 힘들어. 아들은 대기업 다니느라 바쁘고 지 새끼들 학원 데려다줘야 한다고 주말에도 종일

운전하더라고. 딸은 저기 관광지 입구에 큰 식당 있지? 거기서 사위랑 장사하는데 집이 세 채야. 우리 자식들 다 부자여!”

그러면서 인건비로 저한테 만 원을 챙겨주시더군요.

알고 보니 그 할머니도 허름한 집에 초라한 옷차림이지만 집, 눈, 발 다 합치면 최소 수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그동안 힘들게 오가며 일손 거들어줬던 게 다 뭐였었나 싶더라고요.

저는 도시에서 하던 일이 잘 안돼서 우연히 이 시골에 와 보증금 100만 원에 월 10만 원짜리 월세방에 살고 있는데 집이 짠 만큼 단열도 전혀 안 돼서 겨울이면 보일러를 틀어도 별 소용이 없고 그냥 옷을 껴입고 살거든요. 온수 장판, 전기난로 같은 건 예민해서 사용도 못 하고 제 이런 사정을 그 아주머니와 할머니도 오가면서 슬쩍 봐왔을 텐데 대체 도움받아야 할 사람이 그간 누구였는지 허탈합니다. 자기 자식 생각하는 거에 10분의 1이라도 남의 자식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이후로 동네 사람들의 일은 일절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자기 집 일 도와달라는 요구는 계속 있었는데요. 한 2~3년 정도 바쁘다는 핑계로 발길을 끊어버리니 지금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네요. 마음이 후련합니다.

Letter 14

소주 한 병으로 10년이 행복

김애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로

태 생이 음치였을까? 나는 노래를 잘 못 불렀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자장가를 불러주지 못하고 동화책만 읽어줬다. 나는 아이들이 나를 닮아 음치일까 봐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이들은 모두가 정상이었다.

언제부턴가 부부 모임에서 저녁 식사 후에 2차를 노래방에서 즐기는 풍토가 생겼다. 노래의 기본도 못 갖춘 나는 항상 노래방의 무르익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존재가 됐다. 창피했던 나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렸다.

“모두가 자기 때문이야. 내 생각을 말하면 버릇없이 대꾸한다고 면박을 주고 모임에서는 말도 못 하게 하고 시댁의 애경사에도 내 의사 표시는 빙그레 웃는 것으로만 끝내고 설거지만 열심히 하면 100점 맞을 수 있다고 내 입을 막았지. 그래서 목청도 좋아들어

음치가 되고 노래를 잘못 부르게 된 것 맞네. 맞아!”

그런 나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다. 유림 집안에서 자라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는 시누이들과 큰동서가 노래교실에 다니자고 제안해 온 것이다.

남편을 졸랐다. 한 번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여섯 번 만에 남편이 겨우 승낙을 해줬다. 3개월만 다니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그거야 나중 일이다. 일주일에 다섯 번씩이나 노래교실에 갈 수 있다니 신바람이 났다.

그런데 신혼 때보다 더 꿈같았던 노래교실 3개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 노래교실을 더 다녀야 하는데 이 장벽을 어떻게 헤쳐 나갈까? 애교를 부려볼까? 막무가내 떼를 써볼까? 그 두 가지 작전 계획은 남편이 지른 큰소리에 놀라 맥도 못 추고 오그라들었다.

작전을 변경했다. 어느 날 소주 한 병을 사 온 나는 단숨에 마셔 버렸다. 그리고 술기운을 빌려 목 놓아 울어버렸다. 그것도 아주 구슬프게. 갑자기 들리는 울음소리에 놀란 남편이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다.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나는 가슴을 치며 엉엉 울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자기 누나도 다니고 형님도 다니고 애기씨들도 다니는 노래교실을 왜 나만 못가냐고?”

발을 동동 구르며 아이처럼 울었다. 한참을 울어대니 동네가 창피했던지 남편은 허락했다. 울고 떼를 써서 허락받은 나는 멋쩍게 씨익~ 웃었다. 그때 내 나이 십둘이었다.

신나게 노래교실을 나간 지 3년째 되는 어느 날 집에 들어서니

기분이 싸했다. 마침 그날 아들이 운동 기구를 사들이는 날이어서 대문과 방문이 열려 있어도 의심 없이 들어갔다. 아들 이름을 부르자 낯선 남자가 나오며 쳐다봤다. 도둑이었다. 도둑은 나를 밀치고 도망쳤다. 지혜 없이 도둑을 쫓아갔지만 허탕을 쳤다. 그림 두 점과 내 패물을 몽땅 도둑맞았다. 패물을 도둑맞았지만 노래 교실 다니는 것을 포기하기는 싫었다. 까짓 패물이 나 대신 노래를 불러줄 것도 아니고 나는 아직 음치를 탈출하지도 못했으니 노래를 더 배워야겠다고 주장했다.

그 후로도 싫증을 낼 줄 모르는 내 성격으로 노래교실에 10년을 다녔다. 소주 한 병으로 쟁취한 행복이 10년 동안 이어졌다.

나는 음치를 교정해서 노래를 잘 부르려고 오랫동안 노력했다. 그것도 제일 쉽다는 트로트만 불렀다. 많은 유행가를 섭렵해 본 나는 어떤 노래가 뜰 것인가 묻혀버리고 말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노래를 배워서 잘하는 노래는 한 곡도 없다. 참 불행한 일이다. 그래도 주변에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사양하지 않고 불렀다. 맞는지 틀리는지도 상관 않고.

며칠 전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악보가 나한테 인사를 했다. 콩나물이 춤추는 것도 보이고 바닥으로 가라앉은 것도 보였다. 내 집념과 끈기에 악보가 감명받았을까?

지금은 글쓰기에 빠져있다. 시집과 수필집을 한 권씩 냈다. 그러면서 노래교실에는 끈질기게 다니고 있다. 음치이건 말건 노래가 좋으니까.

Letter 15

나는 가져가게 생겼나 보다

양순례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다 저녁때였다. 버스 정류장 벤치 위에 묵직한 비닐봉지가 놓여 있다. 살짝 들여다보니 딱딱한 검은콩두부였다. 시중에서 흔히 파는 두부 같지는 않았다. 누군가 급히 버스를 타느라 깜빡 놓고 간 것이리라. “아차!” 했을 때는 이미 버스가 뽕뽕 달리고 있었을 것이다. 주인이 혹시 돌아와 찾지 않을까 기다리는데 옆에 있던 이가 말을 건넸다.

“그거 아마 안 찾으러 올 거예요. 상하기 전에 갖다 드세요.”

나는 가져가게 생겼나 보다. 두부가 마치 내 손에 오기로 한 운명처럼 느껴졌다.

집에 와서 열어보니 생각보다 큼직했다. 반을 싹둑 잘라 앞집으로 들고 갔다.

“형님, 두부 드실래요?”

“웬 두부야?”

“검은콩으로 만든 고소한 두부예요.”

시치미를 뚝 떼며 건네니 형님은 흔쾌히 받아주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른 식탁에서 같은 두부를 나누어 먹었다.

나는 주워 온 두부로 웃음을 나누었지만 정작 두부 주인은 허전한 밥상 앞에서 한숨을 삼켰을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정성 어린 선물이었을 수도 있고 특별한 사연이 담긴 두부였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다면 두부는 상해서 쓰레기가 되었을 것이다. 사람 사는 일이 늘 그렇지 않은가. 한쪽은 잃어 아프고 한쪽은 얻어 웃게 되는 경우가 있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나는 예전부터 ‘가져가게 생긴 사람’이었다.

자전거를 타고 요양보호사 일을 하러 다니던 때였다. 있는 집에서 버려지는 떨정한 옷을 보면 지나치지 않았다. 옷이 없는 이에 게 맞을만한 것들을 골라 전해주고 고물 줍는 어르신께 죄불이를 모아 드리곤 하였다.

영정용 사진이 없는 노인에게는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만들어 드리기도 하면서... 장사를 한다느니 별별 오해를 받기도 하였지만 결국 진심은 남는다. 그때 쓰던 디지털카메라를 보니 스마트폰이 없던 때가 새록새록 하다.

내 작은 수고로움이 어떤 이에게는 기쁨이 되고 없는 이에게는 힘이 된다.

없는 삶을 살아보았기에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노약자에게 끈이 되어주기도 하고 보호자도 되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늘 나를 움직인다.

지금도 주위에 버려진 박스를 보면 지나치지 못한다. 매일 박스

좁은 이웃 노인께 드릴 때도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이 먼저다.

기업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여성시대 책자도 가져다 문우들한테 나누어준다. 무료로 배포되는 책이기도 하고 엠비시 라디오 여성 시대에 글 올리면 그 책자에 실어준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라도 가져온다. 채택되면 상품도 쏠쏠하니까.

오지랖을 떤다고 생각될지언정 나는 하고 만다. 좋은 일인지는 몰라도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서다.

그날 두부 한 모는 스산한 가을 저녁을 따뜻하게 물들이며 내 식탁과 이웃 식탁에 빙그레 밥상이 되어주었다. 반면 두부 주인은 아쉬운 마음 한 덩이를 매달았을 것이다.

그렇게 세상은 늘 돌고 돈다. 때로 우리는 늘 깜빡거리며 살아가지만 그 빈틈 사이에서 서로의 삶이 이어진다. 내가 미처 하지 못한 일을 누군가 하고 다른 이가 해낸 일을 내가 바라보기도 하면서...

나는 속으로 두부 주인에게 진지하게 말을 건넨다. ‘그쪽에서 잃어버린 두부는 대신 이웃과 잘 나누어 먹었는데 우리 정신 차리자고요’라고.

나도 그런데 건망증은 모두 있나 보다.

70 할머니 홀로서기

김형숙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며칠 사이인데 조식으로 성큼 가을이 다가옴을 느낀다.
아침에 손녀 등교길에 물려다 본 하늘은 참으로 맑고 푸르르다.
더 높아보이는 하늘에 때마침 비행기가 날아간다.

“서우야! 언제 비행기 날렸어?” 하네 “이잉, 어디요?” 하다가
이내 “아 하!” 한다. “할머니는 우리 서우가 비행기 접어 날린줄
알았어” 아이 손에서 펼쳐지는 딱 그 크기만 하다.

떨적에서 교문 들어서는 길 본후 공원으로 향한다.

바람 살피며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걸음수는 400보 정도.

한시간을 머릿속 여러 생각 정리하여 물 감상하는 걸음걸이로 힘들지만
걸는다. 인터벌 운동법이 좋다고는 하는데 내가 감히~~ 하다가 할 수
있는 만큼씩만 해보기로 했다.

간격 맞춰 심저전 나무 두 그루, 네 그루, 이제 마홉 2루까지 될 수 있다

그 만큼으로 숨이 턱에 차지만 아! ~ 되구나. 기쁘다.

네 다리는 항암,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무월경과사가 왔다.

양쪽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꿨고 허리는 수술해도 좋아질거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끝이었는데 그래도 걸을 수 있어 감사하며
의무적으로 걷는다.

뚜렷한 아침 햇볕이 너무 좋다. 딱 이정도의 햇볕이라면 아껴두고 싶을
만큼. 집에 돌아와 손녀 운동화를 세탁한다.

반부리 접힐 부분 자국은 더 꼼꼼히 닦고 꼭꼭 눌러 물기를 최대한
짜서 유리창 햇볕 좋은곳에 세워 말린다.

이 좋은 벌에 이거라도 하고 싶어서.

깨끗하고 하얀운동화 신으며 좋아할 손녀 생각하니 절로 흐뭇해질다.

새 어릴적 아버지께선 추석 돌아오기 한 달쯤 전이면 밤마다 여달아문.
미달이 분합문 모두 켜서 벌 좋은곳에 주~욱 세우고 여름철 모기장
태 뒀던거 뜯어내고 하얀 창호지를 문에 바르셨다.

술로 쓰윽쓽 밀가루로 쏜 풀을 바른 창호지를 이 맞춰 문틀에 붙이시고
꾸덕해질 때쯤 양분이 불룩하게 물을 머금고 푸우우~했으셨다.

창호지가 팽팽해지게 하셨으며,

일정하게 뿌려지는 그 물 뿌리는게 참 멋있게 보였는데----

네 기억에 남아있는 분무 모습과 맑은 햇볕의 추억이다.

지금 나는 손녀 돌보느라 딸아이와 함께 산다.

삼평 먼저 가고 5년 손녀 돌봐줄거 이제 초등학교 3년 가지로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한다.

딸아이는 지금 처럼 살자고 하지만 작도 이제 '갑'으로 살아갈 거라며 홀로서가를 위한 구상을 한다.

생전의 삼평은 독특하리 만큼의 가부장적 원위 의식으로 하라는 대로만 하길 원했다. 장보기, 아이들 옷, 배웃 구매까지도 모든 결정이 당선 생각 대로였다, 좋은 부창부수?

그렇게 살아왔기에 홀로서기에 두려움이 크다.

그렇지만 나 자신을 믿고, 또 요즘은 '자식보다 먼저 119가 있고 국가를 믿어라~' 하는 말도 있어 걱정 내려 놓고 실행하려 한다.

그동안 아이 돌보며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과 이걸 할수 있을것 같다는걸 해봤다. 손가락이 아파 병원에 가면 류마티스관절염 검사부터 하는 손가락이지만 피아노를 배워 '아드윈스를 위한 발라드' '펠리스 나비앗' 칠 때는 조금의 위안을 얻는다.

또 내 살림을 내 의지로 사는것도 아니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니 생각하는 머리도 섬세스러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여 9월 1급으로 합격했다 이 나이에, 자유롭지 않은 몸으로 어디에 소용될지 모르지만 그냥 합격증 가지고 있는것 만으로도 흐뭇하다.

얼마전 손녀 친구 할머니와 여가중에 해외여행 (베트남, 미국) 다녀오실것 말씀 하신다. 나는 허허롭게 웃으며 여권 없는 사람들 저 뻘인가 봐요

했다. 살면 생전엔 인간생선이었으니까 이제는 내 몸 눈치를 봐야하는 형편이니까 아쉽지만 여행기, 답사기 읽는것으로 대신한다.

울 봄부터 여름까지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열광하듯이 큰 감동으로 읽었다. 저자의 말솜이 "국토가 박물관"이라 하였는데 답사는 아니더라도 여행 목록에 기록하기는 했는데 아직은 재보기만 할뿐 멈춰버리고만 있다.

홀로서기! 남편과 살던 집은 그분 말년의 요양을 위해 산중으로 옮겼던 터라 그곳에 홀자 살 수 없어 처분해서 버집 장만부터 홀로서기 준비를 해야한다. 지금 살고 있는 딸아이집 신도시는 규격에 맞춘듯 정겨운 여유로움이 내 눈엔 보이지 않아 조금 어수선했 하더라도 전통시장, 좌판에서 길음도 맘출 수 있고 조금 느리고 서투르도 크게 당황하지 않을 그런곳이면 좋겠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저자의 말솜을 빌려 경복궁에 들어섰을때의 위압감이 느껴지는 그 마음이 아니고 창덕궁 후원으로 들어서서 누그러뜨릴 수 있고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그런곳을 꿈 꾀본다.

"십 병을 경영하며 초려삼간 지어버니~ 강산은 들일데 없으니 들허두고 보리라" 읊은 옛 선인의 시조에서 "삼으로 참을 내겠소~ 왜 사냐길 웃지요" 노래한 싹귀에서도 조금은 두꺼운 홀로서기에 위안을 삼는다. 70 할머니의 홀로서기! 응원 해주실거요?



여성시대 사진방



[7812] 부추꽃이에요. 이렇게 많은 부추꽃은 처음 보시죠. 향도 끝내줍니다.



[4901] 오늘 첫 수확 했어요.



[1120] 넘어지며 가슴에 실금이 가서 겁스도 못하고 너무 아파 병원에 왔습니다. 마침 병원 건물 안 기업은행에 들러 여성시대 10월호 월간지도 갖고 병원에서 진료 기다리며 청취하는 이 시간 최고네요.



[4751] 여성시대 들기 위해 예전에 장만했던 라디오입니다. 항상 아내랑 같이 앉아 수다 떨던 우리 집 옥상 테이블에 앉아 여유로움을 즐기고 있네요.



[6995] 밤 줍고 있습니다.



[7842] 여기는 안동 시골입니다. 가을비가 내려 고추밭에서 고추 따는 데 출네요. 그래도 따야 하니 열심히 일하며 여성시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억

글/그림 28

경기 의왕시 오전동 의

여성시대 가족 차장희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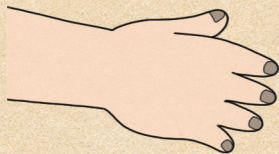
여보... 나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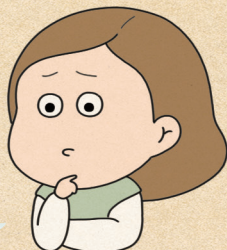
이거 봐봐.
손톱이 쉽게 변했어.



어머
이게 왜 이래?

남편의 손톱은 말대로 쉽게 변해있었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혈액순환 문제일까?
아니면 간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몇 해 전 건강검진에서
중증도 지방간 판정을 받은 적이 있어 더 불안했기에
저희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손톱이 이렇게 변한 건
좋은 신호가 아니니
다른 과어도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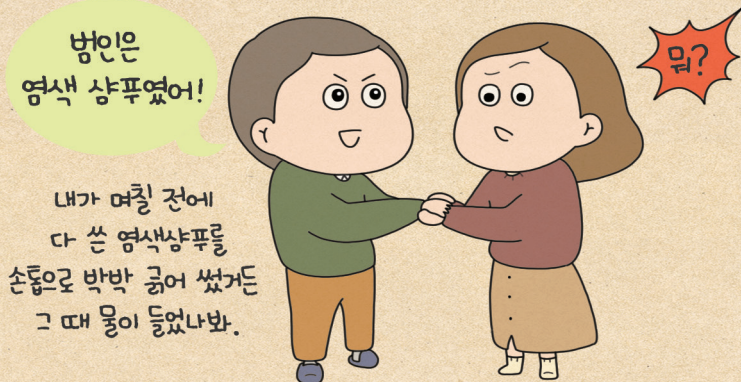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말에
저희의 걱정은 깊어졌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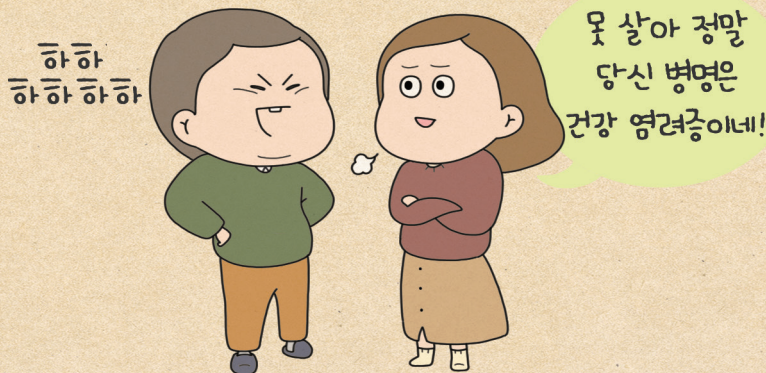
그렇게 며칠 후.



남편이 내민 손에는 깨끗한 손톱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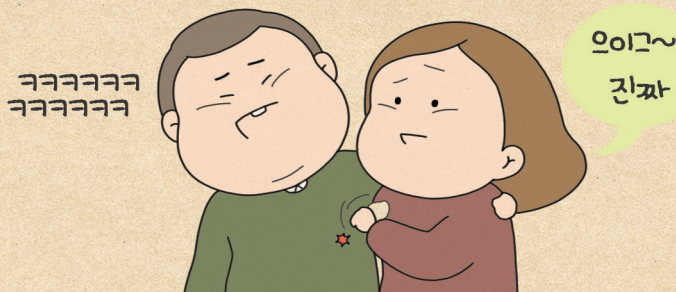


흰머리 때문에 썼던 염색 샴푸 때문에
남편의 손톱이 검게 물든 것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저희는
그제야 웃음을 터뜨리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느덧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중병에 걸렸을까 걱정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어도 미우나 고우나 내 사람.
남편, 오래오래 내 옆에 있어줘~



세계 스마트 팩토리의 선두 주자



IBK기업은행 성서공단지점 거래고객
영일엔지니어링(주) 이창은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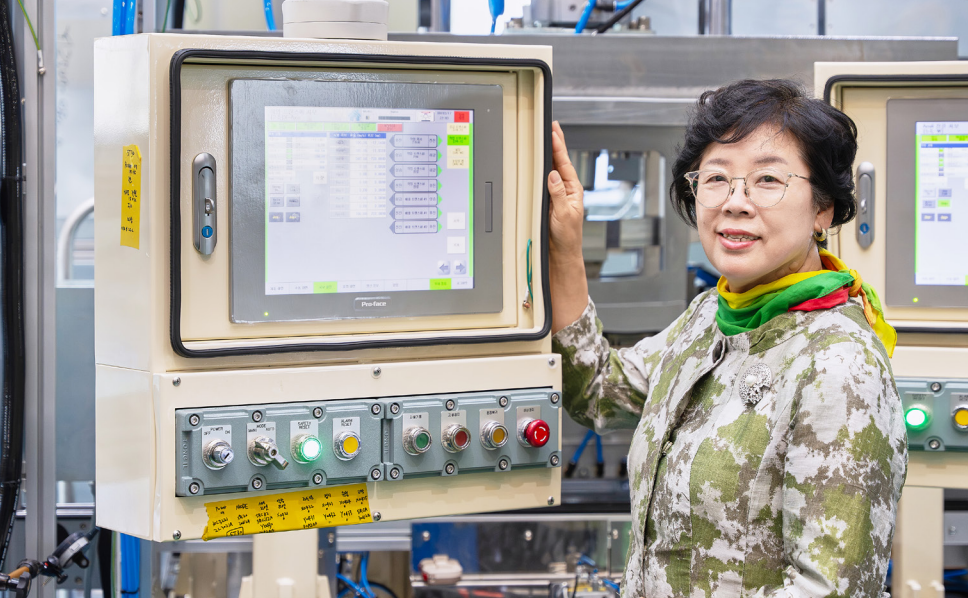
영일엔지니어링(주)은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을 모토로
세계 스마트 팩토리를 선도하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맞춰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로 성장을 거듭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영일엔지니어링의 도전은 지금부터다.

영일엔지니어링은 자동화 설비 제조업체다. 전기자동차용 부품 어셈블리 시스템 제작 및 스마트 팩토리, 부품 테스트 장비 제작을 주로 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자동화 설비를 제작하지만 그중에서도 자동차 부품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특히 조향 장치, 공조 장치, 이차전지 분야의 자동화 공정이 영일엔지니어링의 주요 사업군이다.

영일엔지니어링은 크게 설계, 기계, 전기제어, 소프트웨어 부서로 나누어

있다. 설계와 기계 조립 인력에 더해 PLC와 SW 인력을 갖추고 있어 제조 기업 중에는 드물게 IT 관련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영일엔지니어링은 이를 통해 자동화 공정에 대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일엔지니어링은 1994년 설립되어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축적하고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설비를 구축하여 고객들에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맞춰 기술력을 키우고 연구개발을 통한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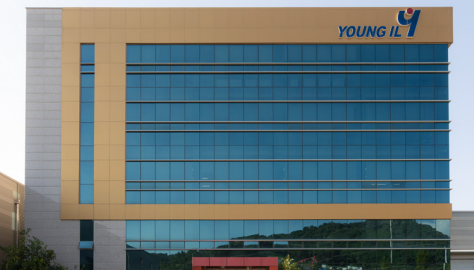
규 아이템 개발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고객들에게 더욱 좋은 제품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처음 창업 당시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부품 자동화 설비 기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전기자동차 공조 장치, 전기수소 부품 스마트 설비, 이차전지 ICB자동화 설비까지 개발하면서 자동차 산업에 특화해 성장해 왔다. 현재 국내 자동차 기업뿐 아니라 미국, 중국, 포르투갈, 멕시코, 브라질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도 설비를 수출하고 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

는 설비 제조업체로 성장했지만 굴곡도 있었다. 국내 기업이 모두 어려웠던 IMF 당시 거래처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영일엔지니어링 역시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섰다운되면서 공장 운영 및 수출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공장 가동이 멈추고 항공편도 줄어들었지만 고객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회사 인력을 적극 파견하여 납기일을 맞추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영일엔지니어링은 지난 2021년 제58회 대구경북 무역의 날 ‘1000만 불 수출



의 탑'을 수상하였고 산업통상자원
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직원들에게 정말 고마워요. IMF
때도 회사 사정을 이해하고 함께
기다려준 직원들 덕분에 위기를 극
복할 수 있었고 이번 코로나 때도 위
험한 상황에서도 해외로 날아가 고
객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
력해 준 직원들 덕분에 지금의 영일
엔지니어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런 일들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이라는 것

을 깨달았어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
처럼 인재를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
하고 능력은 물론 인성까지 볼 줄 아
는 안목을 갖춰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엔지니어링은 기업 성장을 위
해 내실을 다지고 회사를 좀 더 체계적
이고 효율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다
음 목표로 상장(PO)을 준비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성서공단지점 손인
학 지점장은 “영일엔지니어링은 여
성 경영자의 섬세함과 도전 정신으



로 30년간 기술 혁신을 통해 발전해 온 세계 스마트 팩토리를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더불어 “2009년 처음으로 글로벌기업 ZF로부터 100억 원의 신규 수주를 받았을 때 IBK기업은행이 적극적인 수

출 지원 및 정책자금을 활용한 자금 지원을 하며 인연을 맺었다”라며 “앞으로도 회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인 IPO 및 확장 이전 계획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응원했다.



영일엔지니어링(주) 이창은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성서공단지점 손인학 지점장

! 영일엔지니어링(주) 이창은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시대 흐름에 맞춰 혁신하라.
2.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하라.
3.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이다.

영일엔지니어링(주)

대 표 이창은
전 화 053-588-1741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8길 40
홈페이지 <http://www.yieng.co.kr/>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언제 어디서나 어울리는 어라운드울



IBK기업은행 서대전지점 거래고객

(주)어라운드울 정유리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어라운드울은 ‘일상 속에서 오래 입고 싶은 옷’을 추구한다.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시즌리스 제품, 편안하지만 단정한 무드,
작은 디테일에서 오는 포인트, 그리고 좋은 소재와 합리적인 가격이
어라운드울의 강점이다. 특별한 날에도 평범한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어라운드울의 옷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층의 여성 고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어라운드울은 2017년 대전에서 시작된 온라인 기반의 여성복 브랜드다. 대학 시절 디자인을 전공한 정유리 대표가 전공을 살려 여성복 브랜드를 런칭했다.

“어라운드울의 고객층은 20대부터 50대까지 무척 스펙트럼이 넓어요. 무난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이라 호불호가 없고 유행을 타지 않지만 디테일한 부분에 차별화를 주고

있어 고객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높은 퀄리티와 합리적인 가격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어라운드울은 재방문 고객 비율이 높다. 다른 브랜드와 비슷한 디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입어보면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같은 A라인 스커트라도 골반의 위치를 다르



게 잡아 날씬해 보이고 비슷비슷한 코트 같지만 허리선 위치나 벨트의 두께 등을 달리하여 입었을 때 핏이 다르도록 디자인한다. 디자인뿐 아니라 원단의 퀄리티도 다르다. 좋은 소재를 사용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라운드울의 비결이다.

어라운드울은 현재 대기업 브랜드를 제외하고 여성복 단일 브랜드로는 상위 10% 안에 들 만큼 빠르게 성장했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할 기회도 생겼다. 올해 11월까지 현대백화

점 무역점과 여의도 더 현대에서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하였고 앞으로 또 다른 기회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고객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 뒤에는 정유리 대표의 열정이 숨어있다. 시즌마다 신제품을 공개하는 타 의류 브랜드와 달리 어라운드울은 매주 새로운 디자인을 공개한다. 고객들에게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서다. 매주 마감을 하기 때문에 단 하루도 쉴 수가 없다.

SNS 활동도 활발하다. 모델과 룩북(look book)을 찍기는 하지만 정유



리 대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직접 제품을 입고 원단을 설명하거나 핏을 보여주는데 고객들이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 반응이 좋다.

이처럼 어라운드윌의 제품은 기획부터 디자인, 생산, 촬영까지 본사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배송도 직접 컨트롤한다. 온라인 브랜드의 특성상 안정적인 배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자체적으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여 고객들에게 제품이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처음 브랜드를 런칭할 때부터 매출을 많이 내서 거창한 브랜드로 키우려는 욕심은 없었어요. 단지 고객들의 신뢰를 쌓아 오래도록 어라운드윌을 지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었죠. 항상 옷을 만들 때는 고객들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고객들이 예쁜 옷을 합리적인 가격에 입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어라운드윌의 옷을 입으면 스스로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래도록 지속 가능한 브랜드가 되고 싶어요.”



IBK기업은행 서대전지점 이종근 지점장은 “어라운드윌은 품질에 대해서만큼은 조금의 양보도 없이 원칙을 지키고 꾸준히 변화를 모색하여 트렌드를 창조해 가는 멋진 기업”

이라며 “어라운드윌이 K-패션의 아이콘으로 세계 패션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레벨업할 수 있도록 IBK기업은행이 서포트하겠다”고 응원했다.



IBK기업은행 서대전지점 이종근 지점장(왼쪽)과 (주)어라운드윌 정유리 대표

❗ (주)어라운드윌 정유리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합리적인 가격, 좋은 품질의 옷을 제공하라.
2. 매주 디테일한 차이의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여라.
3. 기획부터 배송까지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라.

(주)어라운드윌

대 표 정유리
고객센터 070-8648-0210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73-1
홈페이지 <https://www.aroundyur.co.kr>

근처 편지

여자는 모른다

81 환장의 캠핑

86 날 닮은 너

89 처갓집 말뚝

93 곧대시대

97 남아일언중천금

사랑 사랑 사랑

100 내 아내는 덤덤

104 비혼과 결혼의 차이



일러스트 | 조신애

여자는 모른다

환장의 캠핑

애청자

얼마 전 같은 동네 사는 직장동료한테 고급 정보를 들었는데 우리 동네에 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 완전 짱이야. 가격도 저렴하고 특히 일요일은 자리가 많이 비어서 오후에 가서 고기 구워 먹고 노을 보면 갬성 챙기고 월요일도 없지. 잠깐씩 가서 쉬고 와. 우리 동네 코앞이라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남편은 짐돌이라서 캠핑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거든요. 괜히 가서 나만 고생하고 오는 거 아닐까요?”

“우리 남편도 캠핑에 ‘캠’자도 모르던 양반인데 한 번 데리고 갔더니 밖에서는 요리도 남편이 다 하고 설거지까지 하더라니까. 나 너무 편했잖아. 남편도 좋았는지 요즘엔 본인이 더 신나서 ‘담엔 어디로 갈까? 막 이러더라고. 자기네 남편도 막상 가면 알아서 다 할 거야. 남자들 군대도 다녀와서 원래 그런 거 다 잘하지 않아?’

그 말에 용기가 생겼어요. 저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당연히 캠핑에 대한 로망도 있었죠. 모닥불 피어놓고 불멍 때리면서 음악 감상하며 밤하늘에 별도 보고 남자가 푹푹딱딱 텐트 쳐주고 밥도 해주면 잔잔한 평화를 느끼고 오는 하루! 아~ 상상만 해도 힐링이더라구요. 그동안 딸도 어리고 집돌이 남편 때문에 엄두도 못 냈는데 좋은 기회다 싶었어요. 남편을 꼬시기 시작했죠.

“여보~ 우리 저기 동네 앞산에 숲 체험장에 캠핑장이 생겼다네. 자기 고기 좋아하잖아. 집에서 구워 먹으면 냄새나고 기름 튀는데 우리 거기 가서 숯불 바비큐 할까? 저번에 산 무쇠 주물팬 거기에 구우면 끝내주겠지? 캠핑장 가격도 정말 착하고 동네니까 잠은 안자고 집에 와서 자도 되는데 우리도 캠핑 좀 해볼까?”

제 말에 남편은 별 반응이 없었는데 옆에서 듣던 딸내미가 더 신이 나서 “우와! 캠핑장 가자~ 아빠~ 우리 가자~” 제가 해달라고 하면 꿈쩍도 안 하지만 딸이 해달라는 건 무조건 해주는 남편이라 “고기 맘대로 구워도 된다고?” 못 이기는 척 엉덩이를 소파에서 떼더라구요. 남편은 캠핑 경험이 없는 똥손이고 딸은 벌레를 무서워하는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일요일에 풍경 좋은 곳으로 예약했고 저희는 집에서 잠자고 있던 원터치 텐트와 캠핑 의자, 1인용 인덱션, 쌈 채소와 고기 등을 챙겨서 동네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동네라서 금방 캠핑장에 도착했고 관리사무실을 지나 곧장 주차장으로 올라가려는데 직원분이 나와서 저희 차를 막더라고요.

“지금 캠핑장 주차장이 만차라서요. 짐 놓고 차는 내려와서 여기 주차하세요.”

하는 수 없이 저희 사이트에 짐을 내려놓고 남편은 차를 세우러 다시 내려가야 했죠.

“여보~ 사무실에서 캠핑 테이블 빌려준했는데 아까 깜빡하고 못 받아왔네. 당신이 차 세우고 오면서 빌려올래?”

“오케이~ 알았어.”

저는 그 사이 돛자리에 텐트도 쳐놓고 의자도 펴놓고 준비 완료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람도 솔솔 불고 새소리도 들리고 정말 힐링이더라고요. 텐트를 치는 공간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사생활 보호도 되는 거 같았고 전문 캠핑러처럼 보이는 멋진 텐트에 천막도 많았어요.

“엄마~ 다른 집들은 텐트도 크고 가림막도 있는데 우리 집은 왜 케 작아? 뽀로로 텐트 아니지?”

“우리 집은 아직 초보라서 그래. 잠깐 쉬었다가 갈 거니까 아직은 작아도 되거든.”

아이는 이해한다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저에게 와서 “근데 엄마~ 벌레가 자꾸 나한테 오는 거 같아. 난 정말 무서워.” 초등학교 1학년 특유의 징징을 시작했어요. 평화로운 불명은커녕 애 보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었죠. 근데 주차하러 간 남편은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록 올라오질 않았어요.

“왜 이렇게 안와.”

“엄마~ 나 배고파. 꼬기~ 우리 꼬기 언제 먹어? 꼬기~ 꼬기~”

“아빠가 테이블 가져오면 바로 구울 거야. 아빠 어디쯤 왔나 볼까.”

저 아래 주차장에서부터 남편이 빌려서 들고 온 캠핑 테이블이 그게 그렇게 무거울지 몰랐어요. 남편도 그렇게 무거우면 차로

올려다 놓고 갈 것이지 킁킁대며 이고지고 오느라 늦었나 보더라
고요.

“헹헹~ 여보~ 나 벌써 기운이 다 빠진 거 같아. 여기 테이블 놓고
나는 조금 쉬어야겠어.”

비지땀을 흘리며 올라온 남편은 텐트에 들어가자마자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꼬기~ 우리 꼬기 언제 먹어.”

딸에게 바나나맛 우유를 쥐여주고 잠시 남편에게 쉼을 허락했
어요. 근데 이걸 뭐 한도 끝도 없이 자겠더라고요.

“여보~ 여기 잠만 자러 온 거야? 30분 지났어. 당신 자는 동안 준
비 다 했고 이제 고기만 구우면 되는데. 우리 인덕션 코드가 짧아서
내려가서 가스레인지도 빌려 오는 게 낫겠는데. 그래야 고기 먹지.”

남편은 마지못해 일어나더니 “그래 고기 먹으려면 빌려와야지.
기다려봐. 내가 갔다 올게.” 그리곤 내려가서 또 20분 후에 끙끙 앓
으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워낙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땀
을 뻘뻘 흘리면서도 “이제 고기 먹자~ 먹고 가야지~” 무쇠로 된 팬
에 고기를 최악 굽기 시작하더군요. 시원한 숲속 바람을 느끼며 새
소리 들으며 꼬들하게 잘 익은 라면까지 먹고 나니 천국이 따로 없
었어요.

“아~ 잘 먹었다. 우리 딸, 맛있었어?”

“응~ 집에서 먹을 때보다 이만큼 더 맛있었어.”

“다행이네. 엄마도 배가 불룩해졌어. 너무 많이 먹었나 봐.”

“그래? 그러면 당신이 소화도 시킬 겸 설거지하면 되겠다.”

“나 혼자? 이 많은 걸 다?”

남편이 꿈쩍하지 않고 저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다녀오라고 하더

라고요.

“아니, 이런 데 나오면 남자들이 다 한다던데?”

“난 여태까지 고기 구웠잖아. 그리고 여기까지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하느라고 나 기운 다 빠졌어.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다고.”

약한 모습을 보이며 앓는 소리를 하는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설거지를 다 했습니다.

“집에서도 만날 내가 하는데 나와서도 내가 다 하네. 이게 뭐야. 진짜 아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새소리 들으면서 쉬다 가니 좋네.”

애써 마음을 다스리며 짐을 챙겨서 남편과 딸이 있는 텐트로 갔는데 “여보~ 빨리 와서 이거 좀 도와줘!” 똥손인 남편이 무슨 괴물과 사투를 벌이듯 원터치 텐트와 씨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그러지 말고 그냥 동영상 보고 하자. 두세 번 보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아니야. 이거 금방 할 수 있어.”

조용한 캠핑장에서 커다란 원터치 텐트를 어떻게든 조그만 가방에 우겨 넣으려는 남편 때문에 주변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빨리 가방 열어. 이렇게 접어서 바로 집어넣으면 할 수 있어! 우리 이제 집에 갈 수 있다고!”

“우와~ 됐다! 아빠 했다! 우리 집에 갈 수 있다!”

남편은 환호성을 부르고 딸은 방방 뛰면서 좋아하고 나라를 되찾은 사람들 마냥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초보 캠핑러 우리 가족에게는 아직 힐링 갬성 캠핑의 낭만 이런 건 먼 나라 얘긴가 봐요. “역시 집이 천국이다” 꿀잠을 자는 남편을 보니 이제 캠핑의 ‘캠’자도 꺼내기가 힘듭니다.

여자는 모른다

날 닮은 너

애청자

며칠 전 일입니다. 온 가족이 외식하고 돌아오던 길에 그때만 해도 날이 상당히 더울 때라 우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이스크림 먹자!” 냉큼 슈퍼로 들어갔습니다.

“뭘 먹을까? 더위를 좀 사냥해 볼까?”

“오~ 그러면 나는 열두 시에 만나는 콘을 하나 먹어야겠다.”

“음~ 나는 요거!”

“엄마, 도둑이 제일 싫어하는 아이스크림 골랐네?”

“그래? 이게 왜?”

“누가바. 도둑은 누가 보면 신고하니까 당연히 싫겠죠.”

“아이고 그런 거야? 으휴 썰렁해. 네 덕에 안 먹어도 시원하다야.”

그렇게 각자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골라서 집으로 온 다음 우

선 저는 밀린 설거지부터 했어요. 그리고 아까 골라 온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냉동실 문을 열었는데 영? 어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아까 내가 먹으려고 샀던 아이스크림이 안 보이네. 당신 혹시 봤어?”

그러자 남편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헉! 갑자기 버럭하는 남편. 이걸 뭐 사춘기 아들도 울고 갈 급발진이었죠. 저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니~ 나는 혹시 오다가 흘렸나 아님 누가 먹었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그러자 남편은 제 쪽으로 시선도 주지 않고 소파에 앉아 티브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그럼 뭐 그런가 보지.”

예전 같으면 “내가 얼른 다시 사 올게” 웃으며 달려 나갔을 사람인데 요즘엔 무슨 일인지 아주 쿨한 척 까칠해진 남편. 대체 다 정했던 우리 남편은 어디로 간 걸까요?

남편은 요즘 하루에도 열두 번씩 기분이 맑았다 흐렸다 합니다. 마치 여름 장마철 하늘처럼요. 처음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걱정도 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편에게도 ‘갱년기’가 온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 저도 겪어봤거든요. 별일 아닌데도 괜히 짜증이 나고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지던 날들. 밤마다 불면증에 뒤척이고 마음이 붕 떠서 공허했던 그 시절을요.

혹시 그걸 제가 남편에게 전염이라도 시킨 걸까요? 요즘 남편은

꼭 그때의 저를 보는 듯합니다. 아! 남자 갱년기가 더 무섭다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저보다 훨씬 더 심해요.

한 번은 마트에 가려고 현관문을 나서다가 제가 “아참! 휴대폰 놓고 나올 뻔했네~” 하니까 갑자기 남편이 “하아~ 미쳐 미쳐 미쳐!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순간 저도 욱 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갱년기니까 내가 참자. 내가 참자.’

혼자 속으로 삭히고 또 삭혔더랬죠.

생각해 보면 제가 갱년기를 겪을 때도 남편이 다 받아줬거든요. 제 짜증, 제 눈물, 그 서럽고 힘들었던 마음을 남편이 다 받아줬어요. 지금의 남편을 보면서 문득 그때의 제가 떠올랐고 ‘우리 남편, 그때 많이 힘들었겠구나!’ 고맙고 미안하단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아, 듣고 있어? 지금은 잠깐 흐리고 바람 부는 시기일 뿐 곧 다시 해 뜨는 날이 올 거야. 이젠 내가 당신의 갱년기를 잘 견뎌 줄게. 우리 예전처럼 같이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마트 앞에서 까르르 웃으며 손잡고 장도 뵙시다. 그런 날이 곧 다시 올 거라 믿으며 내가 요즘 한 가지 확실히 느낀 걸 말해줄게요. 여보~ 우리 참 천생연분인 것 같아! 사랑도 고비도 그리고 갱년기까지 이렇게 함께 나눠 갖는 걸 보면 말이죠. 앞으로도 내가 더 잘할게. 사랑해, 여보. 우리 갱년기 손잡고 잘 건너가자.”

여자는 모른다

처갓집 말뚝

애청자

여성시대 코너 중에 ‘여자는 모른다’ 코너를 제일 좋아합니다. 오늘은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서 사연을 남겨봅니다.

문득 떠오른 그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저의 매형입니다. 저는 매형만 보면 그저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만 들어요. 왜냐고요? 우리 누나랑 결혼했으니까요. 저는 또 매형만 보면 항상 고맙고 미안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누나랑 결혼을 해주셨으니까요. 누나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공감할 겁니다.

때는 2008년 8월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누나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는데 부모님께 인사드리기 전에 저한테 먼저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때 전 생각했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그 사람 똥 밟았네. 어떤 멍청이인지 구경이나 해보자!’

그렇게 신촌 어느 카페에서 처음으로 만난 예비 매형.

“반갑습니다. 평소 누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매형은 키 180센티미터에 배용준을 닮은 선한 얼굴. 거기다 한참 아래인 저에게 정중하게 존댓말로 예의를 갖추는 훌륭한 인성까지 갖춘, 제가 봐도 정말 멋진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누나한테 형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누나한테 잘해주신다면서요?”

“아휴~ 잘해주긴요. 누나가 저 같은 사람을 만나주는 게 고마울 뿐이죠.”

그때 매형의 눈을 봤는데 속된 말로 약간 돌아있더군요. 뭔가에 홀린 듯한 눈빛?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이 이럴까 싶었습니다.

“다음 달쯤에 엄마 아빠한테 인사드리고 결혼 승낙도 받을 생각이야. 네가 엄마 아빠한테 오빠 좋게 좀 얘기해줘.”

외모와 인성을 두루 갖춘 매형이 뭐가 불안해서 이런 부탁까지 할까 이상했습니다. ‘혹시 형님 직업이 별론가?’ 혼자 속으로 의심도 했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매형은 직장도 정년이 보장된 아주 튼튼한 곳을 다니고 있었어요.

‘희한하네. 아쉬울 게 하나 없는 사람이 대체 왜 우리 누나를 좋아하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 매형과의 첫 만남이 끝나갈 때쯤 “아! 잠깐만요.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죠? 저도 오래 해봐서 아는데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용돈에 보태 써요.” 거금 30만 원! 지금도 적지 않은 액수인데 2008년 당시 취업 준비생이던 저에게 그 돈은 정말 큰돈이었습니다.

매형은 용돈을 주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따로 연락하라고 전화 번호도 알려주셨고 한 달 후쯤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잘 지내죠? 취업 준비는 잘 돼가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이제 곧 가족이 될 텐데 계속 존대하시면 불편하잖아요.”

“그래? 그럼 처남이라고 불러도 될까? 처남, 계좌번호 좀 알려 줄래? 고시원에서 취업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지.”

“예? 아니에요. 저번에도 용돈 주셨잖아요. 누나가 알면 저 죽 이려고 할 거예요.”

“누나한테 말 안하면 되지. 걱정하지 말고 계좌번호 알려줘. 내가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할게. 걱정하지 마.”

그 후에도 매형은 주기적으로 제게 생활비에 보태라며 축복을 보내주셨고 매형과 누나는 이듬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안했어요. 왜 ‘언젠가 연극은 끝나기 마련’이라고 하잖아요. 누나가 매형과 연애할 땐 여린 척, 착한 척, 여성스러운 척 연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로 본성이 나올 텐데 우리 착한 매형이 누나의 본모습을 보고 못 살겠다고 하면 어찌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신혼 초 누나네 신혼집에 자주 가보게 됐는데요. 역시나 갈 때마다 매형이 열심히 청소기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어서 와 처남! 먼 길 운전하느라 피곤하겠단. 소파에 앉아서 좀 쉬고 있어. 내가 청소 끝내고 저녁밥 해 줄게.”

“매형이 저녁도 해요? 누나는요? 누나! 누나도 청소 좀 같이해. 매형 혼자하고 계시잖아.”

“아~ 시끄러워! 내가 청소하면 이상하게 청소해도 집이 더러워. 그리고 네 매형 음식 진짜 잘해. 셰프 뽀치는 실력이라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고 빨리 청소 좀 도와. 매형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 주세요.”

“아냐. 손님이 왜 청소를 해. 거의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래. 괜히 나한테 시비 걸지 말고 넌 조용히 소파에 찌그러져 있어.”

열심히 집안일하는 매형의 모습을 보며 더더욱 불안했습니다.

‘매형이 어느 날 갑자기 각성하면 어찌지? 평생 이렇게 노예로 살 순 없어!’ 하면서 집이라도 나가면 어떡하느냐고.’

근데 신기한 건 매형의 표정이었어요. 제가 걱정하는 내내 매형은 표정이 밝았거든요. 밝아도 너무 밝았어요. 불만이 1도 없는 심지어 행복해하는 표정.

그날 저는 매형이 만들어준 소고기 곱창전골에 소주 한잔을 기울이며 누나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취기를 빌어 매형에게 물었습니다.

“매형~ 솔직히 힘드시죠? 그러니까 여자를 잘 만났어야죠. 이 건 매형 잘못도 있는 거예요. 사람 볼 줄 모른 죄!”

“무슨 말이야. 나 요즘 살찐 거 봐. 결혼하니까 맘도 편해지고 너무 행복해. 처남도 이 여자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결혼해.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 보며 사는 건 정말 행복이야. 그리고 누나는 나의 구세주야!”

“매형! 세뇌 당한 거 아니죠? 살췍이 같은 우리 누나 성격 정말 쉽지 않은 거 저도 다 알아요.”

“처남~ 처남은 누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자로 보면 누나만큼 완벽한 사람이 없어.”

완벽? 여자로 보면 완벽이요! 우와 누나가 대체 매형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제대로 세뇌당한 매형의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을 구원해 준 매형한테 정말 잘하자! 죽을 때까지 충성! 정말 충성을 다하자!’

누나와 매형이 결혼한 지 어느덧 16년. 매형이 변했냐고요? 아니요. 한결같아요. 한결같이 누나를 너무 사랑해 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더 슬픕니다. 매형은 그새 음식 솜씨가 더더욱 진화했고 청소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청소용품 라인을 훨씬 꿰뚫더라고요.

물론 저야 매형이 너무 고맙죠. 덕분에 우리 누나가 공주처럼 살고 있으니까요. 결혼 전 누나의 성격이 야생 살쾡이처럼 난폭했다면 지금은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집고양이 정도가 됐어요.

누나는 알까요? 제가 매형을 얼마나 사랑하고 고맙고 안쓰럽게 생각하는지요. 전국의 모든 처남들! 제 마음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매형에게 잘합시다.

여자는 모른다

꼰대시대

애청자

어느덧 입사 28년 차, 이제 저도 중견 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막내였던 신입사원 시절엔 늘 제일 먼저 출근해서 밤새 묵은 공기를 새 공기로 바꿔놓고 선배님들 오시기 전에 회의실 책상 정리도 하고 떨어진 비품 관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날 제일 늦게 퇴근했어도 다음날 제일 먼저 출근하는 게 막내의 일이라고 그땐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다 그렇게 살았더랬죠.

“선배님, 오셨습니까?”

“어~ 일중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그러게. 술 세네. 어제 회식 제일 끝까지 남아 있더니만 머리 안 아파?”

“괜찮습니다. 부장님이 택시비 주셔서 집에 편하게 왔습니다.”

“진짜? 부장님, 저는요?”

“에이~ 미스 양은 어제 1차만 먹고 일찍 집에 갔잖아. 억울하면 미스 양도 다음부터 3차까지 같이 있어.”

“부장님, 근데 저도 어제 3차까지 있었는데?”

“에이~ 욱 대리, 너는 집이 여기 코앞이잖아. 신입은 집이 저쪽 동네야. 멀더라고. 그리고 너희는 무슨 신입을 그렇게 질투하냐. 이따가 내가 해장국 살게. 그때 특으로들 먹어.”

“오예~ 앓싸~”

“감사합니다. 부장님~”

제가 신입일 때는 그랬습니다. 회사 ‘식구들’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어서 같이 일하고 밥 먹고 회사에 너무 오래 있어서 가끔은 각자 잠만 집에서 자고 회사에서 같이 사는 기분이 들 때도 있었어요.

물론 그때가 마냥 다 좋았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었으니 당연히 사무실 분위기도 시대에 맞게 변하는 게 맞다 생각하지만 가끔은 너무 건조하게 변해버린 사무실 공기에 적응이 잘 안됩니다.

“좋은 아침~”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젊은 동료들 앞에서 ‘라떼는 말이지~’ 꼭 이런 애길 하고 싶진 않지만 적막한 아침 공기를 마주할 때마다 라떼의 사무실 분위기와 문화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입이 안 보이네?”

“음~ 늦나 봅니다.”

“그래? 그 친구 며칠 전에도 지각하지 않았나? 들어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지각이 좀 잦은 거 같네? 강 대리, 뭐 들은 거 없어?”

“집이 좀 멀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 집이 어딘데?”

“저도 정확히 잘 모릅니다.”

“강 대리가 신입 교육 맡고 있지 않아? 안 물어봤어? 어느 동네 사는지?”

“네.”

“왜?”

“개인 사생활인데. 아무튼 출퇴근 시간이 꽤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차! 얼마 전 Z세대들은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걸 아주 불편해한다’라는 기사가 생각나더군요.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지각은 안 된다고, 주의를 좀 주라고 하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특히 요즘 라떼 시절이 그리운 건 점심을 먹으러 갈 때입니다. 우리 댄 상사들이 일부러 회사 생활에 아직 적응 못한 신입이나 조금 관심을 뒤야 할 직원이 보이면 은근슬쩍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요즘 힘든 건 없는지, 일은 할만한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지?”

“그 집 애 이제 둘 다 돼 가지 않아?”

“신입, 사투리 쓰네? 고향이 어디야?”

이러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도 하고 정도 붙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들 점심시간을 개인의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혼자 밥을 먹으러 나가거나 구내식당에서 마주쳐도 각자 휴대 폰을 보면서 식사하고 식사가 끝난 후에도 오롯이 홀로 쉬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니까 같이 밥 먹자는 말이 부담스러운 상사의 부탁이 될까 봐 쉽게 청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라떼는 후배 직원들이 상사와 밥 먹는 게 어렵긴 했지만 그 타임을 이용해서 업무적인 도움도 청하고 상사가 내게 관심이 있구나 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러면 곤대, 잘못된 구습이라고 욕먹을지 두렵습니다.

그날 저녁 MZ 또래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회사 신입사원이 이래서 저래서~ 요러쿵저러쿵~ 그래서 말인데 요즘은 후배들한테 어디 사는지도 물어보면 안 되는 거냐?”

“당연하지. 업무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굳이 물어보는 건 선넘는 거예요. 업무적인 이야기 외에는 개인적 질문은 안 하는 게 맞죠. 꼭 필요하면 인사과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X세대 아빠로서 저는 MZ세대를 도저히 이해 못 하겠다. 아들에게 포기 선언을 하는 걸로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좋은 기업 문화로 바뀐 것들도 많지만 가끔은 라떼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 나서 쓸쓸해질 때가 있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와서 그런지 오늘은 더더욱 라떼 시절의 훈훈한 사무실 공기가 그리웁습니다.

여자는 모른다

남아일언중천금

애청자

남자들 단독방에는 묘한 분위기가 있다. 암묵적으로 ‘3줄 이상 쓰면 죽는 병’ 같은 게 있달까? 남자끼리 있는 방엔 무슨 말이 올라와도 <이응이응, 놀고 있네, 오케이, 쿨> 이 정도의 말로 대화가 끝난다. 마치 군대 암호 같은 최소한의 단어로 소통 끝! 그렇게 짧게 말해도 다 통한다.

남중·남고·공대에 군대를 다녀온 내가 하늘이 도와서 지금의 여자친구를 인생의 선물로 얻게 된 날, 나는 매일이 충격이었다.

우선 사람 몸에서 어떻게 그런 꽃냄새가 날 수 있는지 놀라웠고 매번 배부르다면서 달달한 케이크나 디저트를 꼭 먹는 모습이 신기했고 고양이처럼 부드럽고 가느다란 몸에 내 바위처럼 두껍고 딱딱한 몸뚱이가 닿을 때마다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건 그녀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였다.

“여보세요~ 어~ 무슨 일이야? 지금? 응 괜찮아. 말해. 왜? 무슨 일 있어? 진짜? 아 왜 또? 진짜 왜 그런데~ 아흐~ 못 살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진짜? 미쳤다! 웬일이니. 응~ 너는? 괜찮아? 아흐~ 진짜~ 속상했겠네. 나? 나는 지금 남친이랑 있지. 응~ 그래~ 나중에 또 만나서 얘기해. 밥은 먹었어? 일단 달달한 거 때려먹고. 응~ 그 래~ 내가 이따가 집에 가면서 다시 전화할게. 응~ 안녕~”

이 대화를 듣고 나는 상상해 봤다. 내가 만약 우리 회사 동기들 독방에 <나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다>라고 쓴다면? 예상되

는 반응은 <힘들면 쉬어> <오늘만? 난 매일> <힘들 땀 고기 앞으로> <치킨 어때?> <쿨! 어디?> <반반 무 많이 집> <오키, 고고> 끝이다. 그걸로 끝.

그렇게 모인 치킨집에서 그나마 누군가가 ‘왜? 뭔데? 말해봐’라고 한들 ‘오~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이런 공감이나 위로 따위는 없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주겠다고며 뼈 때리는 조언이나 충고만 하려고 듣거나 “야, 2차는 어디 갈래?” “피시방 고고~” 늘 이런 식이다.

근데 문제는 내가 요즘 말로 예젠남, 여친을 만난 이후로 감성이 넘칠 때가 꽤 있다는 거다. 예를 들어 군대 동기들 독방에서 누군가 <오랜만에 한잔?> 이런 번개 제안이 떴을 때 남자 놈들 반응은 뻔하다. <고고, 굿, 오키> 근데 거기서 나만 혼자 괜히 설레고 흥분해서 ‘3줄 이상 쓰면 죽는 병’을 까맣게 잊고 <야, 우리 모이면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옛날얘기도 좀 하고 노래방도 가자. 진짜 보고 싶다. 애들아> 이렇게 썼다 갑자기 방 분위기가 싸해진다. 읽고 씹는 애들 ‘읽씹’만 줄줄이 이어지다가 그나마 어색함을 못 견딘 어떤 애가 <오~ 오늘 OO이 열정적이네ㅋㅋ>라고 한마디 해주면 그나마 나는 그날 ‘오바하는 놈’ 확정. 술자리 내내 놀림감이다.

여자들은 모를 거다. 남자들이 단독방에서 왜 말을 짧게 하는지. 3줄을 넘기면 진지충, 감성충, 심지어는 <취했나? 취했어!> 이런 놀림을 당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결국 나는 오늘도 하고 싶은 말 다 지우고 짧게 <ㅇㅋ> 두 글자만 남겼다. 사실은 친구들 얼굴이 진짜 진짜 보고 싶고 그 리운데도 말이다.

사랑 사랑 사랑

내 아내는 덤덤

애청자

아내는 저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저는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요동치고 세상에 감사하고 감탄할 일이 넘쳐나는 사람인데 아내는 뭘 해도 덤덤 매사 그냥 덤덤하거든요.

얼마나 덤덤하냐고요? 결혼 전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분위기 있는 노래를 깔고 촛불과 조명, 꽃으로 집을 꾸미고 손편지까지 준비했어요. 아내가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 어찌나 걱정했는데 역시나 손편지를 봉투에서 꺼내는 순간부터 제가 아내 얼굴을 보면 울컥 눈물이 터져버릴 거 같아서 편지지에 고개를 박은 채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희은아~ 흑흑~ 너를 처음 본 날이 너무도 생생하다. 기억나니? 내가 너한테 첫눈에 반했던 거. 흑흑~”

저 혼자 감정이 격해져서 훌쩍이다가 목소리 뒤집어지고 목 메

이고 억지로 참으려니까 더 힘들어서 결국 그냥 울음보를 터뜨렸고 “나랑 결혼해 줘. 으앙~” 겨우 편지를 끝내고 아내를 그윽하게 바라봤는데 아내가 귀엽다는 듯 저를 보며 얇은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안 울어? 나만 울어?’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계획대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끼워줬고 아내는 덤덤하게 손가락에 낀 반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자~”

그걸로 끝! 그게 전부였어요.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때도 평소처럼 퇴근하고 저녁 먹고 티브이 보다가 잘 시간이 돼서 침대에 누워 “여보~ 잘자~” 하고 불을 끄려는 순간 아내가 말하더군요.

“아 맞다! 나 임신 했어.”

예? 제가 상상했던 임밍아웃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유난히 더 밝은 조명 아래 알록달록 예쁜 풍선이랑 풍선보다 더 예쁜 아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여보~ 아빠 된 거 축하해~” 그러면서 저한테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고 저는 두 눈이 동그래져서 두 줄을 확인하고 또 하다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제 따귀를 두어 번 때려본 다음에 아내를 번쩍 안고 거실을 빙글빙글 돌며 환호하는 모습. 저는 늘 그런 걸 꿈꿨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자다가 무슨 가스불 잠그기를 깜빡한 사람처럼 ‘아 맞다! 나 임신 깜빡했네~’ 이런 느낌으로 불쑥 알려주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서 또 울먹이는 목소

리로 아내에게 말했어요.

“임테기! 임신테스트기! 그거 어딴어? 나도 좀 보자.”

“그거? 지저분해서 버렸지.”

혈. 완전 낭만 제로. 어쩔 사람이 그렇게 깔끔하고 위생적일까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에 침대에서 일어나 아내를 안고 빙글빙글 돌려는데 “여보, 늦었어. 아래층에 민폐야. 얼른 자자.” 이러면서 제 모망을 끝내 버리더군요.

아내가 임신 36주 차 때 그때 더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데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 여보~ 무슨 일이야?”

“응~ 내가 오늘 집에서 갈비탕 먹으려고 냉동고에 있던 거 밖에 꺼내놔거든. 그거 이따 집에 가면 다시 냉장고에 좀 넣어주라.”

“왜? 밥 안 먹었어? 근데 이거 무슨 소리지? 지금 혹시 밖이야?”

그러자 덩덤한 우리 아내.

“응. 나 긴급 출산해야 된대. 병원이야.”

아내가 갈비탕 먹으려고 해동하는 사이 배가 아파서 잠시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갔는데 그게 진통이었고 긴급 출산을 하게 된 상황. 근데 그 와중에 아내는 출산보다 갈비탕을 더 걱정했던 거죠. 전화를 끊자마자 회사에 말하고 무슨 정신으로 병원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주삿 바늘이 꽂힌 채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자마자 감성 보이 저는 또 눈물이 터져서 엉엉 울고 있는데 아내는 그런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갈비탕은? 냉장고에 넣고 왔어?”

아니, 지금 갈비탕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지! 당신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울며 걱정하는 저를 아내는 또 토닥토닥 괜찮다고 다 잘될 거라고 위로해 주고 진정시켜 줬지만 내심 갈비탕이 상할까 내내 걱정하는 듯했습니다. 정말 덤덤하죠?

연애하던 시절에도 아내는 제가 회사에서 힘들다고 전화하면 “그래? 그럼 오늘은 우리 만나지 말고 각자 집에서 쉬자” 이렇게 쿨하게 말해서 저를 서운하게 했어요.

‘이 여자는 나를 많이 안 좋아하나? 내가 안 보고 싶나?’

남자 체면에 차마 말은 못 하고 혼자 속으로 꿈 하게 있다가 퇴근하려고 터벅터벅 회사 밖으로 걸어 나오면 “자기야~ 여기~” 우리 회사 앞에 차를 딱 대기하고 있다가 집까지 저를 편안하게 태워다주고는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푹 쉬어” 그리곤 쿨하게 다시 자기 집으로 떠나던 여자랍니다. 표현은 늘 덤덤하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마음이 여린 사람이지요.

미숙아로 태어난 우리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게 되었을 때도 아내는 매일 밤 아이의 속싸개를 붙잡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겉으로는 덤덤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감정을 오롯이 감당하는 아내의 진심을 알기에 저는 오늘도 아내의 덤덤함까지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는 중입니다.

사랑 사랑 사랑

비혼과 결혼의 차이

황선영 | 경남 의령군

저는 38살까지 자신을 비혼주의자라고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위에서 성화가 있을 때마다 마지못해 소개팅 자리에 나가곤 했지만 “남자에게 어떻게 미쳐야 결혼하고 같이 살지?”라는 생각으로 마음의 벽을 세워서 그런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9년 2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니던 부산 수영장에서 자주 보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총각이 있는데 아파트도 있고 공무원인데 퇴근하고 소도 키우고 한봉있제. 토종별, 그것도 키운다카더라. 그 집에 가면 돈 걱정은 없을 거다. 그리고 나이도 니보다 두 살 어리다던데. 한 번 만나봐라.”

‘언니’라고는 했지만 저보다 서른 살은 많은 어른이라 계속 거절 하기도 그랬고 사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엄청 부지런한가보다 하는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연락처를 받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그 사람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그 사람과 카톡 대화는 너무 재미있고 잘 통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요즘 일이 너무 바빠 만날 시간이 없다며 카톡만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매일 카톡을 주고받다가 드디어 그 사람이 만나자고 그러더군요. 저는 속으로 ‘이제 만나면 카톡 친구를 잃겠구나’ 싶었습니다. 그전에도 소개팅에 나갔지만 마음을 열지 못해 한 번 보고 다시는 안 본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는 맛있는 밥이나 먹자는 생각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 소개팅 바로 얼마 전에 아버지의 성화에 마지못해 소개팅에 나갔었습니다. 상대방은 덩치도 크고 남자답게 생겼는데 머리숱이 너무 적더군요. 평소에 제 머리카락이 얇고 힘이 없어서 콤플렉스가 있었는지 머리카락만 유심하게 보이더군요. 그 뒤로는 아예 대놓고 “나는 다른 건 안 보고 머리숱만 본다” 말하고 다녔습니다.

드디어 첫 만남의 날 약속을 잡고 부산 모처에서 만나 그 사람의 차로 함께 움직이기로 하고 길에서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첫인상은 키가 저보다 작아 보였고 마르고 까무잡잡했습니다. 그런데 압권은 머리숱!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EBS에서 “참 쉽죠?” 하며 그림을 그리던 밥 아저씨. 그 아저씨처럼 곱슬거리는 파마머리가 공처럼 둥둥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저는 멍하니 그의 머리숱만 한참 바라봤습니다. ‘나는 머리숱만

본다'고 했던 제 말이 떠오르더군요.

차에 타자마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갑자기 창문이 고장 나서 창문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글썽 까맣게 때가 낀 손톱을 보여주며 말하는 겁니다.

“한번 고치 몰라다가 이래 됐는데 원래 저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때 낀 손톱을 내보이는 남자라니. 저는 속으로 ‘이 사람 뭐지?’ 하면서도 속으론 웃음이 나왔습니다. 3월 말의 바람은 아직 차가웠고 우리는 창문을 열고 히터를 뽕뽕하게 켜 채 부산 영도의 일식 돈가스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람이 카톡으로 미리 알려준 소개팅 코스는 영도에서 식사하고 현여울마을 산책과 북카페 탐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 보고 편한 운동화를 신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신경 써서 워킹화를 신고 갔는데 글썽 그 사람은 갈색 구두를 신고 왔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두가 제일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 뭐지 싶었습니다.

계획대로 산책도 하고 북카페에도 들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수영장 언니가 말한 조건과는 꽤 다르더군요. 나는 나보다 두 살 어린 게 아니라 두 살 많았고 아파트도 대출이 태반이라고 하고 토종별이랑 소도 그 사람 아버지가 키운다고 했습니다. 소도 한 마리. 언니가 과대포장을 한 거였죠. 그래도 이상하게 그 사람과 있으면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날 마지막에는 갯통시장에 있는 국숫집에 들러 따끈한 잔치 국수를 먹었습니다. 그날따라 국수면은 통통 붙어있고 국물은 멍 멍했지만 그마저도 웃음으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

면서 마음속에 ‘이 사람과 있으니까 재미있네’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영화를 봤습니다. 고민 없이 고른 영화는 ‘샤잠’. 서로 어색한 39세 여자와 41세 남자가 두 번째 만남에서 보기에는 유치한 청소년 히어로 영화였습니다.

저는 남자와 스킨십을 극도로 싫어하는 비혼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공포영화도 아닌 히어로물 영화를 보며 놀라는 장면이 나오면 제가 스스로 제 어깨를 그의 어깨에 꼭 붙이고 있더군요. 신기하게도 이 남자와의 스킨십은 전혀 싫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과 결혼할지도 모르겠다’.

세 번째 만남에서는 기차를 타고 순천 국가정원으로 갔습니다. 기차 칸에서 먹을 거라고 직접 삶은 계란에 사이다를 준비했더군요. 도착해서는 점심으로 꼬막 정식을 먹는데 그가 꼬막을 하나하나 까서 제 앞에 놓아 주더군요. ‘참 자상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은 좋았고 어색한 우리는 순천만 정원을 조금 떨어져서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그는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선영 씨, 손 한 번만 잡고 가면 안 됩니까?”

저는 속으로 ‘아니 그냥 잡으면 되지. 물어보면 내가 잡으라 하겠나? 한 번만은 또 머고?’ 싶었고 저는 단호하게 “안 돼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풍성한 파마머리를 굵적이며 멋쩍게 앞서 나갔죠. 그리고 잠시 뒤 제가 먼저 그의 손을 스윽 잡았습니다. 그는 놀라는 것도 잠시, 이내 제 손을 꼭 쥐고는 손 전체를 살살이 조물딱 조물딱 거리며 걷는 거였습니다. 순간 ‘이게 뭐지? 내 손이 농락당

하는 건가?’ 싶었지만 신기하게 이때도 싫지는 않았습니다.

영화를 보던 날의 직감대로 우리는 10번도 채 만나기 전에 결혼을 약속했고 만난 지 91일 만에 결혼했습니다. 초스피드였죠.

하지만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아이를 갖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유산, 세 번의 시험관 시술 실패를 겪고 이제 우리 나이도 있고 하니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자”는 마음으로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별다른 노력 없이 결혼 6년 차인 작년 5월 자연임신을 했고 올해 3월 6일 제 나이 마흔다섯에 3.87kg의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정글북에 나오는 양말도 안 신고 팬티만 입고 정글에서 뛰어다니는 소년처럼 건강하게 자라라고 태명을 ‘모글리’로 지었고 강하고 굳세게 자라라고 이름은 ‘산(山)’으로 지었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직접 작사했다고 산이에게 불러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산이가 스무 살이면~ 아빠는 칠십 살~ 칠십 살~ 옛날에 칠십 살이면 고려장~ 고려장~♫”

철없는 아빠 말처럼 엄마, 아빠가 나이가 많아 우리 산이를 잘 챙겨 줄 수 있을지 걱정이지만 우리 가족이 있어 매일 매일이 행복한 날입니다.

비혼주의자였던 저의 삶이 이렇게 180도 바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인연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나는 결혼 안 할 거야”라고 단단히 마음먹으신 분이 계신다면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비혼과 결혼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허공 속의 흐름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들판은 노랗게 출렁이는데 가을비는 웬 말이나? 가을별 며칠이 소중한 이때 우리 동네엔 밤이면 주룩주룩 밤새 비 내리다 아침이면 그친다. 별스럽다, 참! 이 원고는 10월 중순에 쓰고 있는 점 양해 바란다. (매월 10일에 월간 여성시대가 나오면 곧 원고 마감일이기 때문이다.)

요즈음 나는 거의 집에서 빈둥거린다. 아무런 약속도 할 일도 없이 (사실 일이 산더미지만 일단 무시치고 하냥 놀아버린다.) 후줄근한 흰 옷차림으로 종일 집콕이다.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자.” 그러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답다 편하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어떤 휴일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내디딘 적 없이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추석 땐 생방송 후 오사카로 떠나 성시경 콘서트 초대가수로 잠시 다녀왔다. 일단 밤에 도착해 숙소에서 옷 정리(무대 의상 정리가 제일 중요한 일), 무대용 신발, 화장도구, 정전기 방지용 스프레이, 안개처럼 분사되는 스프레이 물통, 목욕 도

구 등을 챙긴다. 밤에 제일 속상한 건 아무 데서나 깊은 잠을 잘 수 없다는 점. 6~7번쯤 깨면서 잠자려고 애쓰다 아침을 맞는다. 든든한 조식으로 하루를 버티고 방으로 돌아와 작은 소리로 발성 연습을 한다.

2003년 나가사키 평화 콘서트에서 함께 부르자고 만든 ‘인생의 선물’이란 곡은 내가 작사하고 갑장인 일본의 포크싱어 사다 마사시가 작곡해서 일어와 우리말로 서로 번갈아 불렀는데 성시경과 듀엣을 했다.

일어가 입에 안 붙어 거의 강박처럼 외우고 중얼대고 또 외운다. 점심은 숙소로 도시락을 배달받아 먹었다. 점점 차가운 음식이 싫고 체할까 겁나서 천천히 씹어 먹었다.

대기 시간에 맞춰 보낸 차편에 매니저와 이동, 무대 뒤 양희은이라 쓰인 큰방 한가득 온갖 찬 음료, 따뜻한 음료, 간식거리, 땀 닦을 타올, 새 칫솔에 치약까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철저한 준비에 감탄했다. 긴 복도엔 밴드와 스태프들을 위해

김치까지 구비한 뷔페 식단이 화려하다.

리허설 후에도 계속 일어로 중얼댄다. 내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남의 공연에 초대되어 실수를 하면 만회할 기회가 없어서다.

공연 후 뒷얘기가 “사람들이 죄 울면서 일어나 기립박수 치는 거 보셨지요?” “아니, 못 봤어. 객석 잘 안 봐.” 실제로 나는 객석 위의 허공을 본다. 각기 다른 곳에서 제각각의 호감으로 모인 사람들의 머리 위 허공. 그 공간이 공연의 흐름을 좌우한다. 어떤 때는 막힘없이 뚫고 지나는가 하면, 어떤 때는 걸돌며 갇혀 있기도 하다. 이런 얘기는 무대에 서봐야 이해가 된다. 어쨌든 노래 끝난 후 반응을 살피지는 않는다. 노래가 어땠는지는 내가 아니까.

어찌나 긴장했는지 의상을 갈아입는데 속옷까지 땀에 젖었다. 내후년 공연까지 약속해 달라는데 글썽 기약할 수 있을까?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회복하는 데 시간도 꽤 걸린다.



알레르기 비염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무소식이 희소식인 경우가 많다. 문자나 전화도 잘 없고 어찌 지내는지 도통 알 길이 없을 때 주로 쓰는 표현이다. 무언가 부족하거나 아쉽거나 문제가 생겼으면 연락을 했겠지.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거니 연락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이 표현이 내 신체 구석구석의 장기들에도 해당된다. 위가 어딘는지 폐가 어디쯤인지 심장은 잘 뛰고 있는지 모른 채 사는 게 평온한 상태일 테니. 그런데 요즘 같은 환절기에 특히나 제발 좀 무소식이었으면 하는 부위가 있다. 바로 코. 적당한 높이에 곧게 뻗어있어서 내 얼굴 중 그래도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부위가 코인데 그 안쪽은 참 별로다. 얼마나 예민하신지 원~. 기온이 조금만 떨어지거나 먼지가 날린다 싶으면 어김없이 소식을 보낸다. 나 여기 있다고. 지금 불편하다고. 재채기하거나 콧물을 훌쩍이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꽉 막혀버린다. 그전에는 내가 코로 숨을 어찌 쉬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코막힘이 일어나는 순간 코로 숨 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닫게 된다. 어쩔 수 없이 뚝

린 게 입이라고 구강호흡을 하는데 그게 참 별로다. 입안이 금방 마르고 괜히 먼지도 먹는 거 같고. 누워서 잠이라도 잘라치면 똑바로 눕는 건 엄두도 못 낸다. 왼쪽으로 돌아누우면 오른쪽 콧구멍이 좀 뚫리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왼쪽으로 숨이 좀 쉬어진다.

이렇게 다년간의 노하우로 환절기나 겨울철을 잘 견뎌왔었다.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니 바로 여성시대 생방송 중이다. 특히나 사연을 소개할 때 코가 막혀 코맹맹이 소리가 나면 이거 참 난감하다. 시원하게 풀고 갈 수도 없고 말이다. 그러니 계속 훌쩍거릴 수밖에. 그러다 정말 슬픈 사연을 만나면 이걸 뭐 그야말로 눈물 콧물 범벅이 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내 옆에서 희은 누님도 늘 비슷한 시기에 코를 훌쩍이고 계신다. 이런 건 안 닮아도 되는데. 우리 둘 다 한켠에 휴지를 준비하고 코를 틀어막으며 사연을 읽는 시기가 바로 요즘이다.

이런 비염과 코막힘 얘기를 쓰는 이유는 혹여 생방송 중에 코 찡찡으로 코를 먹거나 훌쩍이거나 할 때 넓은 아량으로 잘 좀 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서다. 최대한 요령껏 잘 넘어가 볼테니 너무 걱정도 마시라는 말씀과 더불어 이 글을 읽으시는 우리 당당이님들 부디 뺨 뚫린 코로 시원하게 호흡하시며 늦가을과 다가올 겨울도 나시길.



IBK기업은행

기업의 [사명]

MISSION

使命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볼트 하나로 모두의 삶을 바꾸자”

산업용 볼트 제조 기업 S사

“빛으로 일상을 지킨다”

LED 실균 조명 개발 R사

“자율형 로봇 기술로 인간을 자유롭게”

완전 자율화 로봇 개발 P사

이 땅의 모든 기업이
그 사명을 다 이루도록

세상을 움직이는 기업. 그 옆에



IBK기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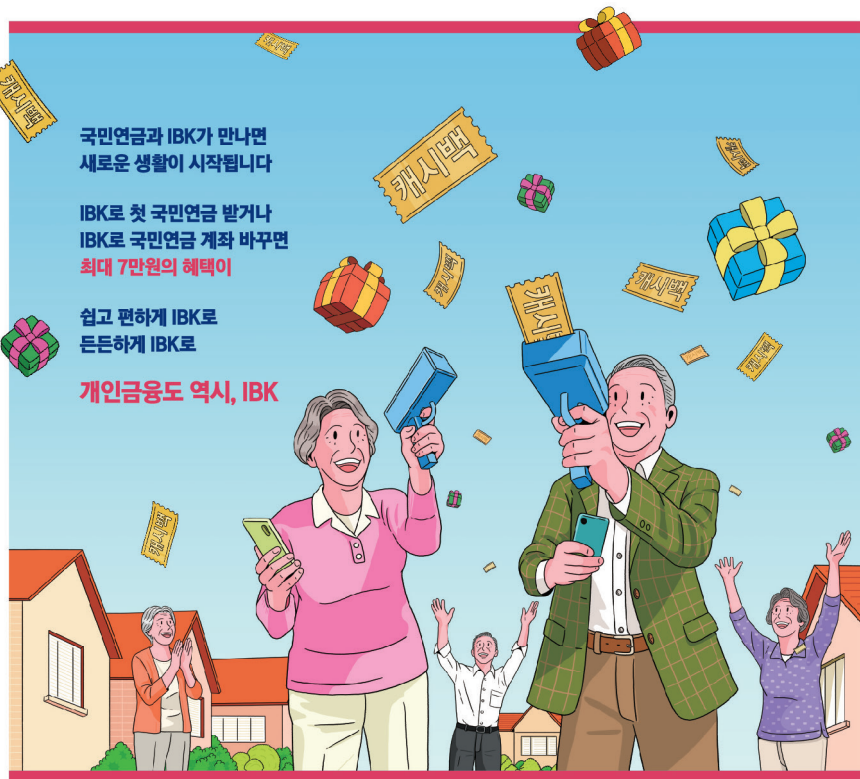
IBK로 국민연금 만나고 일상이 즐거워졌다

국민연금과 IBK가 만나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IBK로 첫 국민연금 받거나
IBK로 국민연금 계좌 바꾸면
최대 7만원의 혜택이

쉽고 편하게 IBK로
돈든 IBK로

개인금융도 역시, IBK



IBK 앱에서 쉽게, 지점에서 편하게
국민연금 입금계좌 변경 서비스



최대 7만원의 혜택을 받으세요
국민연금 입금계좌 변경 이벤트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3876호(2025.06.13.)[유효기간:2026.06.12]

· 이벤트에 대한 세부 내용과 조건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고,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 기업은행